

LG '에어케어' 사업 확대

metro®
메트로 2015년 10월 29일 목요일 제3330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8일>

지표	값	변동
코스피	2042.51	(−2.14)
코스닥	693.53	(+5.21)
금리(국고채 3년)	1.63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131.50	(−2.00)

"226兆 잡아라" 은행, 총성 없는 전쟁

계좌이동제 D-1

수시입출금 규모 총예금 20.7% 달해
은행권, 이탈방지·신규유치 경쟁 치열
묶음상품·차별화 서비스 속속 개발

한국금융硏 "고객만족도 높아질 듯"

'226조원(수시입출금 규모)'이 들어 있는 통장 주인의 마음은 어디로 움직일까.

30일부터 주거래 은행을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은행 통장 고객은 시중은행의 '집토끼'와 같았다. 한번 잡아두면 쉽게 도망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객 입장에선 계좌에 딸린 각종 자동이체 등 제약으로 조건이 좋은 다른 은행으로 통장을 바꿀 엄두를 못 냈다. 하지만 계좌이동제로 클릭 몇 번에 자동이체와 함께 계좌를 옮길 수 있다. 통장 주인에게 거래은행의 서비스를 따져 볼 기회가 생긴 셈.

은행들은 고객 빼앗기와 지키기 경쟁에 올인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 계좌이동제 빅뱅 몰고 오나

자동이체 계좌는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를 통해 손쉽게 바꿀수 있다.

지금까지 은행 고객이 자동이체 계좌를 바꾸려면 통신·보험·카드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처리해야 했다. 이런 번거러움이 한꺼번에 사라진 것이다.

금융권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계좌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상당한 '머니 무브(Money Move)'를 예상하고 있다.

산술적으로 갈아탈 수 있는 돈은 226조원. 계좌이동의 대상이 되는 수시입출금 규모는 3월 말 기준 계좌 수 1억9000만개, 잔액은 226조3000억원 수준으로 총예금의 20.7%에 달한다.

갈아타려는 대기수요도 많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4월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25~59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을 넘는 응답자가 최근 3년 내 주거래 은행을 변경했다(17.8%)거나 변경하고 싶었으나 못했다(33.4%)고 답했다. 변경을 원했던 이유로는 '가까운 영업점이 없어서'가 43.4%로 가장 높았고 '다른 은행의 우대 서비스가 좋아 보여서'(38.3%)가 뒤를 이었다.

해외 사례에서도 계좌이동제는 빅뱅을 몰고 왔다.

영국의 대형은행 바클레이스는 작년 한 해 동안 8만 계좌, 로이즈는 5만 계좌가 순유출됐으나 중소형 은행인 산탄데르는 17만 계좌, 할리팍스는 15만 계좌가 순유입됐다.

한국금융연구원 김우진 선임연구위원은 "계좌이동제가 시행되면 기존 고객 이탈로 은행 간 차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그 결과 은행산업이 재편되거나, 고객은 크게 이동되지 않지만 기존고객을 유지하려는 은행 노력이 커지면서 고객만족도가 높아지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그는 "은행은 수수료 무제한 면제 등의 단편적인 혜택으로는 신규고객 유치는 고사하고 기존고객 이탈마저 막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묶음상품 제공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좌이동제의 장단점>

구분	금융소비자	은행
장점	*은행(계좌) 선택권 확대 *자동이체 계좌관리의 효율성 증대 *계좌변경 관련 전환비용 경감 *고객 유치 과정에서 각종 편익 증가	*은행산업의 경쟁 효율성 증대 *고객 확보 기회(고객 기반 부족 은행) *고객 관리 역량 강화 *브랜드 인지도 개선
단점	*금융소비자의 자발적 관심 부족 *전환 기간 중 연체 등의 피해 발생 우려	*계좌 유치와 관련한 과열 경쟁 우려 *마케팅 비용 증가에 따른 수익성 저하 *저원가성 예금 금리 상승 *도입 초기 운영리스크 발생 가능성

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은행권 "통장을 지켜라"

총성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됐다.

KB국민은행이 지난 7월 31일 계좌이동제를 대비한 상품으로 출시한 'KB국민ONE통장'은 이달 26일까지 32만5426계좌에 7018억원을 끌어모았다. 이 통장은 18영업일 만에 가입고객이 1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공과금 이체나 KB카드 결제실적이 1건만 있어도 자동이체 등의 수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어 가입자가 급속히 늘어난 것으로 은행 측은 분석했다.

이런 주거래 특화상품 뿐만 아니라 기존의 직장인 우대통장도 '주거래 고객'을 지키는데 한몫하고 있다.

신한은행이 지난 7월 14일 내놓은 신한 주거래통장의 성적도 좋다. 이달 26일까지 94만3139계좌를 통해 2조7112억원이 누적됐다.

신한 주거래통장은 기존 직장인 우대통장과 통합한 주거래 우대통장과 주거래 미래설계통장 등 2개로 구성돼 있다. 신한은행의 주거래 통장은 급여이체, 카드 결제, 공과금 자동이체 고객 등에게 전자금융수수료, 인출·타행이체수수료 우대 혜택을 담았다.

신한은행은 "주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한 통장으로는 가입 고객이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 같은 성공에 고무돼 지난 18일 기존 주거래통장에 주거래 카드, 금융혜택 가족 서비스를 추가한 '주거래 온(溫) 패키지'를 출시했다.

우리은행은 계좌이동제에 대비한 주거래 통장을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출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 3월 출시한 우리웰리치 주거래통장이다. 입출금식통장·대출·신용카드 등으로 꾸려진 패키지 상품의 얼굴 격인 이 통장은 지난 26일까지 101만7643계좌에 1조7302억원이 모였다.

KEB하나은행의 '행복Knowhow(노하우) 주거래 우대통장'은 작년 10월 계좌이동제에 대비해 출시한 '행복노하우통장'까지 포함할 경우 이달 26일 현재 142만7986계좌에 2조2781억원이 누적됐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

휴대전화로 원스톱 물품보관… '해피박스' 아십니까?

오늘부터 지하철 5~8호선 전역 운영
비밀번호·위치·결제정보 문자 전송
요금도 기존보다 최대 50% 저렴해





물품보관함 '해피박스'와 이용안내문(왼쪽). /서울도시철도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보관함 위치와 비밀번호, 결제방법까지 문자로 전송해주는 똑똑한 물품보관함 '해피박스'를 5~8호선 전 역에서 만날 수 있다. 28일 서울도시철도공사(사장 김태호)는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새로운 지하철 물품보관함 '해피박스'를 29일부터 전면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물인터넷은 사물에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관련 데이터를 인터넷을 이용해 주고받는 기술이다.

기존 물품보관함은 이용자가 물건을 맡길 때 직접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암기해야 했지만, '해피박스'는 잠금장치 화면에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하면 중앙시스템과 무선통신으로 접속해 임의로 비밀번호를 생성하고 비밀번호와 보관함 위치, 결제정보를 내 휴대전화에 문자로 전송해준다. 또 7단계로 복잡했던 사용절차가 2단계로 간소화됐다.

기존에 임대 운영하던 것을 공사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서 요금도 내려갔다. 소형 보관함 기준으로 기본 2시간에 1000원으로 보관시간별로 할인율에 차이가 있으나 기존보다 최대 50% 저렴해졌다.

공사는 운영에 앞서 지난 2월부터 약 5개월간 5호선 여의도역, 7호선 학동역 등 5~8호선 18개 역에서 '해피박스'를 시범운영했다. 그 결과 초기에는 사용법을 몰라 어려워하는 고객이 다소 있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익숙해지며 저렴해진 요금에도 기존 임대료 수입의 2배가 넘는 수입을 올렸다.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개발처 장경호 차장은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공사도 이익을 보고 시민들도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직영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역별 이용승객 수에 따라 설치할 예정으로 시범사업 중에 발견된 관리·시스템 측면의 개선사항을 반영해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밖에도 공사는 A지하철역 보관함에서 B지하철역 보관함으로 물건을 배송해주는 역간 배송서비스, 인터넷쇼핑으로 구매한 제품을 배송받거나 지역 농수산물 직거래 등도 가능하도록 추진중이다. 김태호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해피박스로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궁무진하다"며 "단순한 물품보관 기능을 넘어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Shin Dong-Bin, kept his word

신동빈, 약속지켰다



Shin Dong-Bin, the chairman of Lotte, unraveled more than 80% of the cross-shareholding loops among the subsidiaries. Lotte said on the 27th that from the end of August for 2 months 349 cross-shareholding loops, which accounts for 84% of the total amount of the loop (416) in the company, have been removed.

The market expects that the reliability of the company would increase since the governance structure has been improved.

Rest of the cross-shareholding loops will be cleaned up in the process of listing hotel Lotte, removing cross-shareholding of Lotte Shopping and converting the holding company system.

On the 28th of August, Shin purchased 19 thousand stakes (35 billion, 758 million won) at his own expense in order to remove 34%(140 loops) of the cross-shareholding loops. On the same day, he also removed 209 of the loops (50.2%) by purchasing its 3 subsidiaries' stocks including Lotte hotel and Lotte Shopping.

Wall Street believes that Lotte should find ways to improve governance structure in its subsidiaries.

Getting Hotel Lotte listed on the stock exchange would be the start of it. Shin said "We expect to spend 7 trillion won on the conversion of holding company system" "I will carry forward initial public offering (IPO) so that the shareholder constitution could be diversified".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그룹 계열사 간 순환출자고리의 80% 이상을 끊었다. 롯데그룹은 27일 8월 말 이후 약 2개월 동안 기존 416개의 순환출자고리 중 약 84%(349개)를 해소했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롯데 지배구조가 한층 투명해지면서 시장의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순환출자 고리는 호텔롯데 상장, 롯데쇼핑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지난 8월 28일 신 회장은 사재를 털어 롯데제과 주식 1만9000주(종가 기준 357억5800만원 규모)를 사들여 순환출자 고리 34%(140개)를 한꺼번에 끊었다. 이어 이날 호텔롯데가 롯데쇼핑 등 3개 계열사 보유주식을 매입해 209개(50.2%) 고리를 추가로 없앴다.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방점은 지주회사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그 시작은 호텔롯데의 상장이다. 신 회장은 지난 8월 지배구조 쇄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비용으로 7조원을 예상한다"며 "한국 롯데의 지주회사인 호텔롯데의 주주구성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애플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낸 반면 트위터는 20억 달러의 누적 손실이 쌓였다. 미국의 두 혁신기업의 명암은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갈렸다.

▲ **미국**이 남중국해 중국의 인공섬 수역을 언제든 다시 항해하겠다고 밝히자 중국이 방공식별구역 선포 카드를 내비쳤다. 동북아 패권을 둘러싼 미중 양대 강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중국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알리바바**가 7~9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매출을 올렸다. 모바일 전환이 성공했다는 평가다.

▲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가 차량 140만대를 리콜하기로 했다. 6기통 엔진에서 연료가 누출돼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정치·사회·라이프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8일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다 80분 만에 파행됐다.

▲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2일 서울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 **대법원**이 상고법원의 대안으로 대법원 내 상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데 대해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롯데그룹**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8일 "야당은 입만 열만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라면서 이렇게 미래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사물인터넷을 접목한 새로운 지하철 물품보관함 '**해피박스**'를 29일부터 전면 운영한다. 휴대전화 번호만 입력하면 보관함 위치와 비밀번호, 결제방법까지 문자로 전송해주는 똑똑한 물품보관함 '해피박스'를 5~8호선 전 역에서 만날 수 있다.

▲ 2차전까지 마친 **한국시리즈**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가 1승 1패를 나눠가지며 승부가 다시 원점이 됐다. 3차전은 29일 잠실구장에서 열린다. 양 팀은 각각 타일러 클로이드(28·삼성)와 장원준(30·두산)을 선발로 내세워 또 한 번의 격전을 치른다.

▲ 한국 최초의 민간 소극장인 **삼일로 창고극장**이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40년 만에 결국 문을 닫았다.



"서해 5도 수산물 싣고 서울로" 28일 오전 인천시 서구 경인아라뱃길에서 수산물을 실은 서해 5도 어선들이 서울을 향하고 있다. 이들 어선에 실린 540kg 상당의 꽃게, 활어, 굴 등 수산물은 이날 서울 성동구 뚝도시장으로 옮겨져 판매된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LG전자가 공기청정기와 프리미엄 가습기, 정수기를 아우르는 신규 브랜드 '**퓨리케어**(PuriCare)'를 론칭하고 글로벌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기존 에어컨과 제습기 브랜드인 '휘센'과 '퓨리케어'를 축으로 에어케어(Air Care) 시장을 선도한다는 전략이다.

▲ 삼성전자의 2016년형 **지펠아삭** 김치냉장고가 출시 6주 만에 5만대 판매를 돌파했다. 특히 3도어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M7000' 모델은 전년 동기 대비 65% 이상의 높은 판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신형 항공기 도입과 운항 노선을 확장하는 등 차별화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수'들이 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현재 국내 LCC는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 티웨이 등 모두 5곳이다.

▲ **넥슨**은 2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4번째 '넥슨 모바일데이'를 개최하고, 모바일 신작 전략 시뮬레이션 롤플레잉 게임(SRPG) '슈퍼판타지워'의 개발 전략과 핵심 콘텐츠를 공개했다.

▲ 오는 30일부터 주거래 은행을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시행됨에 따라 은행들의 고객 빼앗기와 지키기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은행 고객은 자동이체 계좌를 바꾸려면 통신·보험·카드사 등에 일일이 연락해 처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 홈페이지(www.payinfo.or.kr)를 통해 손쉽게 바꿀 수 있다.

▲ **하나금융그룹**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지문과 홍채, 안면 등 생체인식을 통한 본인확인 시스템을 내년 1월 도입할 계획이다. 삼성카드는 핀테크 스타트업인 한국 NFC·KG이니시스와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터치형 NFC간편결제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이처럼 금융업계에 핀테크(금융+기술) 바람이 불고 있다.

▲ WHO(세계보건기구) 산하 **IARC**(국제암연구소)가 26일육가공식품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대형마트의 햄 소시지 매출이 일제히 급감했다. 한국육가공협회는 연구대상 모집단이 가공육을 과잉섭취한 이들로만 구성됐다며 이를 정면반박하고 나섰다.

▲ **홍대거리**가 젊은이들의 거리에서 3040의 회식장소로 변모하고 있다. 회식용 메뉴를 출시하거나 캠핑장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이색 회식장소가 넥타이, 하이힐 부대를 유혹하고 있다.

내일부터 은행 계좌이동 가능해진다

계좌이동제 Q&A

30일부터 주거래 은행을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시작된다.

계좌이동제는 기존 거래 은행 계좌를 다른 계좌로 옮기면 통신료, 카드요금, 공과금 같은 각종 이체 항목도 자동으로 새 계좌로 따라가는 서비스다.

어떻게 서비스를 이용하고,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인지 문답으로 정리했다.

<계좌이동서비스(Account Switch Service) 추진일정>

이용경로	자동이체	서비스 (요금청구기관 범위)	추진일정 ('15년 7·8·9·10·11·12 / '16년 1·2·3·4·5·6·7·8·9 …)
Payinfo (온라인)	자동납부	조회·해지 (전체)	'15.7월 ~ (은행 등 52개 금융회사)
		변경 (대형)	'15.10월 ~ (은행)
		변경 (전체)	'16.6월 ~ (은행)
	자동송금	조회·해지·변경	'16.2월 ~ (은행)
전국 지점 (오프라인)	자동납부 자동송금		

자료=금융결제원·전국은행연합회

― 계좌이동서비스란 무엇인지.

영국(2009년), 호주(2008년) 등에서 시행 중인 '계좌이동서비스(Account Switch Service)'는 고객의 주거래계좌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신규 금융회사가 일괄 처리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신규 계좌로 변경하는 것이다.

국가별로 금융여건에 따라 기존 계좌 해지, 잔고 이전, 리다이렉션(Redirection) 등 부가 서비스도 제공한다.

― 어디서 할 수 있나.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 관리 시스템인 '페이인포(www.payinfo.or.kr)'에서 통신사요금, 카드요금, 아파트관리비 등의 납부 계좌를 주거래은행 계좌로 손쉽게 바꿀 수 있다.

신규 계좌로 변경 신청하면 5영업일 이내(신청일 제외)에 바뀌게 된다.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주요 지방은행 등 모두 16개 은행이 초기단계부터 서비스에 참여한다. 그러나 전국 은행지점이나 각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좌를 변경하는 것은 내년 2월부터 가능하다. 이 때가 되면 주거래은행 변경을 원하는 고객은 은행지점에서 계좌를 개설하면서 기존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신규 계좌로 변경 할 수 있다.

― 이용시간은.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서비스 종류별로 이용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도 알아두는 게 좋다. 자동이체조회 서비스는 휴일과 상관없이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해지, 변경, 고객센터(1577-5500) 이용은 은행 영업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 회원으로 꼭 가입해야 하나.

아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쳐 이용이 가능하다.

또 인터넷뱅킹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금융회사 계좌에 등록한 자동이체도 한꺼번에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인터넷뱅킹에서 조회가 되지 않도록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보안계좌' 등은 이용에 제약이 있다.

― 계좌를 바꾸는 과정에서 자동납부가 발생한다면.

기존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 전체 요금청구기관의 자동납부 변경도 가능한가.

아니다. 내년 6월이 돼야 한다. 이 때가 되면 페이인포·전국 은행 지점에서 신문사, 학원 등 중소형 업체를 포함한 전체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이 가능해진다. 계좌이동제가 전면 시행되는 것이다. 다만 학교 스쿨뱅킹, 아파트 관리비 등처럼 요금청구기관이 특정 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서비스 이용이 제약된다.

―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상 문제는 없나.

페이인포는 공인인증서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보관하지 않는다. 단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는 암호화·마스킹 처리 후 보관하므로 유출된다 하더라도 정보로서 무의미하다. 기타 납부자번호, 이용기관코드, 자동이체 등록일 등은 자동이체 업무를 위해 요금청구기관이 부여한 단순 일련번호로 타 기관에게는 활용가치가 없는 정보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세계 경제의 키워드 '불확실성'"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G2 리스크' 손꼽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미국의 금리인상 움직임과 중국의 경제둔화 등 이른바 'G2 리스크'를 세계경제의 대표적인 불확실성으로 꼽았다.

이 총재는 28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분야 전문가들과의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앞으로 세계 경제의 키워드는 불확실성"이라며 "이는 미국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과정, 중국은 성장모델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현상이고 구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27일(현지시간) 시작한 미국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10월 정례회의를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확실해 보이던 연내 미국 금리 인상이 경제지표가 엇갈리면서 12월이 될 지, 내년으로 넘어갈 지 무척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지난주 한은이 주최한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몇몇 해외인사들은 미국 금리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전문가들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 상당한 외환보유고 등 외환 건전성과 기초경제 여건이 양호한 점을 근거로 다른 신흥국과 다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우리 정책 당국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아주 긴장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경제가 물론 둔화되고 있지만 중국 정부가 일정 수준의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점을 비춰보면 일부에서 우려하듯이 경착륙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한다"며 "구조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미래성장산업을 발굴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필 기자 roman@

금융당국, 수주산업 '회계절벽' 차단… 투명성 제고

앞으로 조선·건설 등 수주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공사진행률, 충당금, 부문별 총예정원가 등이 투명하게 공개된다. 회계 부정 과징금 상한선도 없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장부상 이익이 일시에 대규모 손실로 전환되는 '회계절벽'을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수주산업 회계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진행기준 회계처리 방식 중 '투입원가율(투입법)'을 적용하는 수주업종 기업에 대해 사업장별 공사진행률, 미청구공사잔액, 충당금 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단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매출액 대비 5% 이상에 해당하는 수주 계약 건에 한한다.

또 공사원가가 늘어나면 회계에 바로 반영하고, 분기마다 총예정원가를 다시 산정해 내부 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했다. 변동내역은 '인프라, 건축, 플랜트, 선박' 등 부문별로 나눠 재무제표 주석사항에 게재해야 한다.

또 공사 수익이 부풀려지지 않도록 실제 공사와 관련이 없는 판매관리비 등이 공사 원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공사계약금액도 보수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미청구공사대금의 회수 가능성을 분기별로 재평가하고 이에 대한 충당금을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금융위는 또 회계 분식 과징금을 행위별로 부과토록 변경, 과징금의 상한선을 없앴다. 현행 제도에서는 여러 회계 기준을 위반했을 때 혐의 금액이 가장 큰 한 건만 부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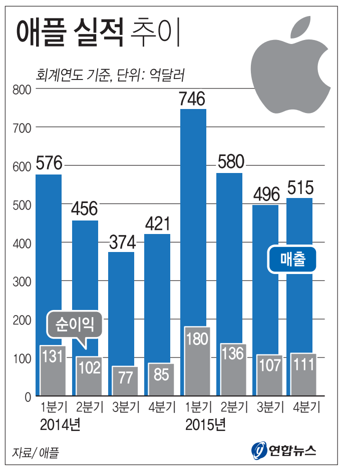
/김문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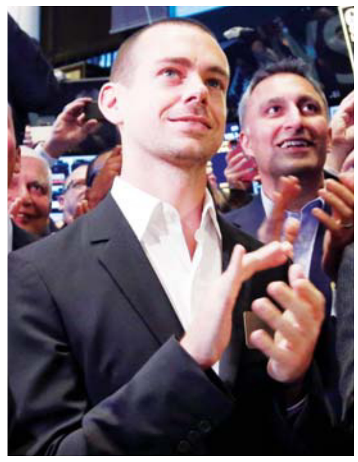
애플은 '승승장구'… 트위터는 '휘청휘청'

위기 대응서 명암 갈린 美 혁신기업

애플
中서 공격 마케팅 위기 돌파
석달 매출 53조… 실적 신기록

트위터
무분별한 속보에 사용자 불만
방향감 상실… 2조 누적적자







최근 트위터의 경영자로 복귀한 공동창업자 잭 도시가 지난 2013년 뉴욕 주식거래소 행사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왼쪽 사진). 애플의 최고경영자(CEO)인 팀쿡이 언론과의 인터뷰 도중 환하게 웃음짓고 있다. /연합뉴스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서 미국 내 두 거대 혁신기업의 명암이 갈렸다.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 분야 혁신자였던 트위터는 떠나가는 이용자들의 마음을 잡지 못해 성장이 정체됐다. 27일(이하 현지시간) 발표된 7~9월 실적은 참담했다. 분기 손실만 1억3200만 달러(약 1500억 원), 누적손실은 거의 20억 달러(약 2조3000억 원)에 달했다.

지난 8월 중국 증시 사태의 와중에 위기를 맞았던 애플은 되레 중국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로 위기를 맞받아 치면서 반전을 맞았다. 같은 날 발표된 7~9월 실적에서 애플은 사상 최고의 실적을 달성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이 22% 늘어났고, 순이익은 31%나 증가했다. 아이폰 판매량은 36% 늘었다.

◆ 애플, 위기설에도 중국 시장서 공격적 마케팅

애플이 석달 동안 거둔 매출액은 515억 달러(약 53조3186억원)이다. 이 중 4분의 1에 해당하는 125억 달러(약 14조1550억원)를 중국 시장(대만·홍콩 포함)에서 거뒀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99%가 늘었다. 아이폰 판매량은 87% 늘었다.

지난 8월까지만 해도 애플은 위기였다. 보름 만에 주가가 내려가며 100조 원 가까운 돈이 증발했다. 2008년 이후 최악이었다. 투자자들이 애플카, 애플워치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애플에 대한 분위기는 변하고 있다. 아이폰 판매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으로 모멘텀과 단기자금이 애플의 주식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월가에서는 "장미는 떨어졌다"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애플이 공을 들여 온 중국 시장이 위기설이 돌며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이라 전망은 더욱 암담했다. 게다가 샤오미 등 토종기업이 강세를 보이는 악재가 더해졌다.

하지만 애플은 물러서지 않았다. 정면돌파를 시도했다. 위기라는 중국 시장에 더욱 공을 들였다. 서비스 정책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애플스토어를 21곳으로 늘렸다.

최고경영자(CEO)인 팀 쿡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은 수시로 중국을 드나들며 중국인들과 소통했다. 팀 쿡은 최근 다롄 지역 애플스토어 개장을 위해 중국을 찾으면서 만리장성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중국의 SNS인 웨이보에 만리장성에 오른 자신의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모두 중국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보였다. 중국인이 선호하는 금색 색상에 이어 이미 대화면까지 장착한 아이폰을 내놓은 상태에서 이 같은 공들이기는 결국 결실을 맺었다.

팀 쿡은 실적 발표일 언론 인터뷰에서 신기록 경신의 원인으로 중국 시장을 꼽았다. 애플은 앞으로 중국 시장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6일 출시한 아이폰 6S와 6S플러스의 폭발적인 인기로 전망은 낙관적이다. 출시 첫 주말에만 사상 최대인 1300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역시 중국 시장에서 선전한 결과다. 신형 아이폰의 실적은 2016 회계연도 1분기에 포함된다.

◆ 트위터, 방향 상실… 성장 정체 늪에서 허우적

애플은 중국이라는 돌파구를 찾아 공략에 성공했지만 트위터는 그렇지 못했다. 나아갈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다. 폐쇄형 SNS의 확산, 메시징 서비스의 성장, 무분별한 속보에 대한 피로감 등 트위터 사용자들의 불만은 오래전부터 계속됐지만 개선은 미미하기만 했다. 이로 인해 익숙한 이용자들만 트위터를 이용할 뿐 나머지는 외면했다. 결과는 성장의 정체였다.

트위터 발표에 따르면 9월말 기준 활동 사용자는 3억700만 명이다. 지난 6월말과 비교했을 때 고작 1%인 300만명이 늘어났을 뿐이다. 트위터는 직전 분기에도 활동 사용자 증가가 200만 명에 그쳤다.

이번 분기는 딕 코스톨로 전 CEO가 물러난 후 공동창업자들 중 한 명인 잭 도시가 임시 CEO로 복귀해 경영을 맡았다. 도시는 10월에 정식 CEO로 취임한 상태다. 구원투수가 나섰지만 제 역할을 못한 셈이다.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다. 도시는 지난 주 "트위터는 우리 시대 가장 획기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라며 "개발자들의 도움, 모든 이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부활을 위한 전략은 내놓지 않았다.

도시는 실적 발표에 투자자들이 실망을 나타내자 "우리는 트위터 전체에 걸쳐 로드맵과 조직을 단순화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용자들을 끌어올 수 있는 명확한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中 경기둔화에도 아랑곳 않는 알리바바… 매출 32% 껑충

모바일 전환 성공·라인업 확대
2분기 총 거래액 126조원 달해
中 성장둔화 충격 완충제 기대



지난 13일 중국의 마윈 알리바바 회장이 오는 11월 11일 '독신자의 날'을 겨냥한 티몰 론칭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의 알리바바가 서방 경제의 중심지 월가를 놀라게 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중국의 성장 둔화를 이유로 알리바바의 실적 악화를 전망했지만 완전히 빗나갔다. 알리바바는 7~9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매출을 올렸다. 28일 월가에서는 "중국이 위기라는 게 맞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전날 알리바바는 회계연도 2분기에 해당하는 지난 석달 동안의 실적을 발표했다. 총거래액(GMV)은 7130억 위안(약 126조 원)이다. 올해 우리나라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거래가 알리바바를 통해 이뤄진 것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증가한 액수다. 증가세가 주춤하기는 했지만 당초 월가의 예상보다는 높았다. 매출액은 222억 위안(약 4조 원)이었다.

알리바바의 실적은 모바일 전환이 성공한 결과로 분석된다. 거래액의 62%인 4400억 위안 (약 78조 원)이 모바일을 통해 이뤄졌다. 모바일 매출액도 전체의 47.4%인 105억 위안(약 1조8000억 원)에 달했다. 모바일을 통한 거래가 데스크탑을 통한 거래를 따라잡았고, 매출액도 거의 반분한 것이다. 1년 전만 하더라도 불가능하리라 여겨지던 일을 알리바바는 해냈다.

서방 언론의 보도에서는 이 같은 실적에 깜짝 놀란 월가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전해졌다.

로이터통신은 "알리바바는 기대 이상으로 온라인을 통해 돈을 뽑아냈다. 모바일 쇼핑의 성장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을 무너뜨렸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 알리바바는 기대 이상의 매출을 기록했다"며 "기대치를 웃도는 알리바바의 실적은 중국 경제가 나아가는 방향을 가늠하려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다.

블룸버그는 관련 기사의 제목을 '알리바바의 매출 급증, 중국의 경제 둔화를 떨쳐내다'로 뽑았다.

기사 본문에서는 "최근 알리바바의 주가는 기업공개(IPO) 이후 가장 좋은 한 달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알리바바가 전자기업인 쑤닝 커머스 그룹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해 상품 범위를 넓히는 시도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클라우드에 기반한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인 것에도 주목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성장 둔화에서 오는 충격을 줄여줄 것으로 전망했다.

서방 언론들은 알리바바가 내놓는 낙관적인 전망을 그대로 전하기도 했다.

알리바바는 분기 실적을 보고하며 중국 소비자들이 여전히 지출 여력과 의사가 있음을 강조했다. 세계 2위 경제국인 중국이 2009년 이래 가장 느린 속도의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임금상승률과 상당한 수준의 저축 덕분에 소비자 구매력이 건재하다고 본 것이다. 조차이 알리바바 수석부회장은 "사람들이 저축과 유동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시경제의 일시적 후퇴가 근본적으로 소비 패턴에 영향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달에는 중국의 가장 큰 쇼핑 이벤트가 있다. 11일 독신자의 날(Singles' Day) 행사다. 같은 날 열리는 우리나라의 빼빼로데이 행사와는 차원이 다른 세계적인 이벤트다. 서방 언론들은 이날 알리바바의 실적에 주목하고 있다. 알리바바가 어려운 경제상황을 얼마나 잘 극복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라는 인식이다. /송병형 기자

‘교과서’ 공방… 예결위, 80분만에 또 스톱

野 “국정화 근거내라” 與 “가능한 요구해라”
KF-X 사업·세월호 특별법 등은 논의 못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8일 386조7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다 80분 만에 파행됐다. 누리과정 예산(교문위),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국방위), 세월호 특별법(농해수위) 등 상임위마다 논의할 사안이 산적해있지만 국정화 논란으로 이들 예산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파행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에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데서 시작됐다. 새정치연합 김광진 의원과 박혜자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역사 교과서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예산심사를 할 수 있다”고 제출을 촉구하자 새누리당 일부 의원이 “예산심사는 국회의원의 의무”라며 고성을 지른 것이다.

이에 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은 “위원장이 고함을 지르는 의원들에게는 두 번 정도 경고를 하고 퇴장시켜 달라”며 “김 의원과 박 의원이 요청한 자료는 오전 11시까지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위원장이 기본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야당이) 저렇게 말하는 것 아닌가”라며 “오전 11시까지 자료를 어떻게 주느냐. 지금이 몇시인데”라며 “실현 가능한 요구를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진행 발언이 끝난 후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을 하고 예산안 협조를 요청했지만 사태는 마무리되지 않았다. 새정치연합 권은희 의원은 “심의를 거쳐 이후에 의결이 이뤄지는 것인데, 국회의 예산심의권과 의결권에 중대한 지장이 있으니 자료를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이에 “국가재정법 등을 보면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 명세서를 다음연도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고 돼있다”며 “법에 의거해 1% 안에서 사용하고 정부에 탄력성을 주고, 다음해에 국회에 정확하게 제출해 승인받으면 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에서 곧바로 반격이 들어왔다. 최원식 의원은 “부총리의 법해석이 잘못됐다”며 “지금 말한 건 절차규정이고 국회는 국정 전반에 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있어 언제든 자료제출을 할 수 있다.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결국 심사가 정회되면서 새누리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과 새정치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따로 만나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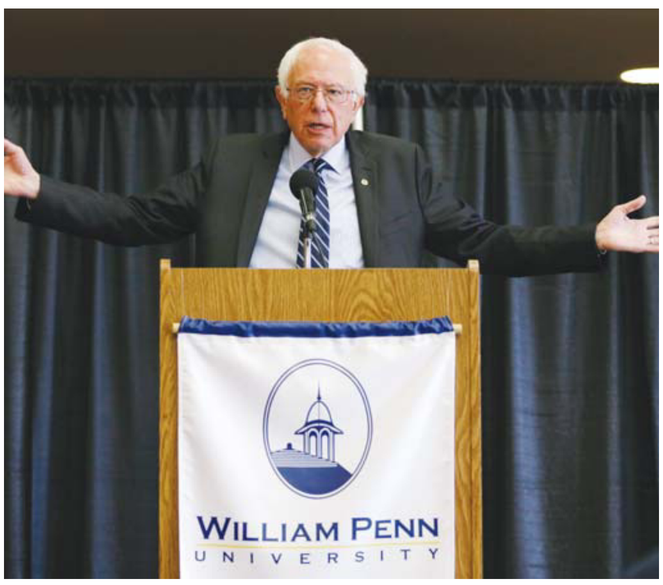
애초 예결위는 이날을 시작으로 오는 30일까지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벌일 예정이었지만 첫날부터 마찰을 빚음에 따라 내달 2~5일 예정된 경제·비경제 부처에 대한 예산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편 예결위에서 심사가 마무리되면 내달 9일 예산안이 소위원회로 넘어가 구체적인 예산 증·감액이 이뤄진다. 같은 달 30일엔 전체회의를 통해 내년 정부예산이 최종 결정된다.

/연미란기자 actor@metroseoul.co.kr

샌더스 ‘부자나라의 안보 무임승차론’ 가세

인터뷰서 韓 언급 안했지만 미군 해외주둔 재검토 제안
공화당 싱크탱크 ‘케이토’ “핵우산內 韓, 비용 더 내야”



미국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 버니 샌더스 버몬트 주 상원의원이 19일(현지시간) 아이오와주 오스칼루사의 윌리엄 펜 대학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공화당 유력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에 이어 민주당의 유력주자인 버니 샌더스까지 한국과 관련해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했다.

샌더스는 26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P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할 것은 회계감사이다. 특히 우리에게 5000 개의 핵무기가 필요한지, 경우에 따라 우리보다 부유한 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전 세계적 차원에서 미군을 주둔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자가 “한국의 경우처럼 말이냐”라고 묻자 샌더스는 “한국이나 유럽을 말하려는 게 아니지만 이 문제를 심각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와 계약한 업자 대부분이 대규모로 비용 초과가 되는 곳에 무기시스템을 들여다 놓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손실”이라고 말했다.

공화·민주 양당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모두 미군의 해외주둔 비용을 문제삼으면서 향후 대선기간에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벌써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24일 친공화당 성향의 싱크탱크인 케이토(CATO) 연구소의 더그 밴도우 선임연구원은 허핑턴포스트에 글을 올려 “지금 펜타곤은 전 세계적으로 부자나라들의 국방비용을 떠안고 있다. 펜타곤을 글로벌 복지기구로 만들지 말라”며 트럼프가 제기한 한국 무임승차론에 동조했다.

그는 “대충 추산해볼 때 부자국가는 국내총생산(GDP)의 1%를 비용으로 물어야 한다. 군사적 대치상태에 있고 미국으로부터 핵우산을 제공받는 한국은 더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한국이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고 있다며 ‘복지의 여왕’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복지의 여왕’이란 정부의 복지혜택을 받아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여성을 가리킨다.

외교전문지 디플로매트지는 트럼프발 안보 무임승차론에 대해 “오랫동안 있어왔던 미국 내 일각의 불만을 건드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은 현재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방위비 분담비용을 매년 1조 원 가까이 부담하고 있다. 간접지원액은 제외한 금액이다.

/송병형 기자 bhsong@

“4대개혁 등 할 일 많은데 野가 민생경제 발목 잡아”

김무성 새누리 대표
“현 교과서엔 문제없는지 야당이 국민에 답변해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사진)는 28일 “야당은 입만 열면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전념하라면서 이렇게 미래로 나아가려는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4대 개혁과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등 현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서는 “야당은 중립적이고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시비를 걸지 말고 정치투쟁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문제인 대표는 지금의 역사교과서가 문제없다고 생각하는지 국민 앞에 답변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우리 아이들을 부정적 패배주의 역사관으로 물들이는 지금 교과서가 정말 좋은 교과서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명확하게 해달라”고 거듭 말한 뒤 “야당이 책임있는 공당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지금의 부실 역사교과서를 그대로 둬선 안 된다. 역사교과서 문제는 학계에 맡기고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와 예산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25일 밤 새정치연합의 역사교과서 관련 교육부 태스크포스(TF) 현장확인 시도에 대해 “정부기관 건물을 급습하고 장외투쟁에 나서는 그야말로 구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한편 김 대표는 전날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국회와 정부는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하는 일엔 하나가 돼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치권이 할 일을 정확하게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민생을 외면한 채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최고존엄 사업임을 못박았다. 국민과 함께 이를 좌절시키겠다”고 시정연설 내용을 평가절하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제왕적 불통령의 아집과 불통”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역사관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져 있고 과학과 관계가 없다”며 지난 22일 청와대 회동 때 이미 소개된 당시 대화 내용을 상기시켰다.

/연미란 기자

롯데家 경영권분쟁 첫 재판 中 사업손실 두고 기싸움

신동주 측 "사업부실 총체적 난국… 장부 열람해야"
신동빈 측 "경영권 복귀 위해 타격 주려는 것" 반박

경영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롯데그룹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에서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오전 열린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신 전 부회장과 신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손실 등을 놓고 1시간 동안 공방을 벌였다.

신 전 부회장 측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양헌 김수창 변호사 등)은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대주주로서 롯데쇼핑의 중국 등 해외 사업의 심각한 부실이 경영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정확한 부실 내역을 파악하고 감독·시정할 목적으로 주주의 지위에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면서 "롯데쇼핑의 중국 주요 종속회사의 4년간 매출은 답보 상태인데 반해 당기순손실은 2011년 753억원에서 2014년 5549억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누적 손실 1조원을 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롯데쇼핑이 그동안 '중국 투자 1조원 손실설'에 대해 "에비타(EBITDA) 기준으로 손실액이 1600억원 정도며 1조 손실은 거짓"이라고 해명해온 데 대해 "에비타는 기업의 현금창출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특수지표이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지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전 부회장 측은 롯데쇼핑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무모하게 투자하고 있다. 현재 해외 사업은 총체적 난국 상태지만, 롯데쇼핑이 그에 대해 공시하거나 해명하는 것이 없다"며 회계장부 열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이에 대해 신 회장 측 법률 대리인(법무법인 김앤장 이혜광 변호사 등)은 PPT 자료를 동원해 적극 반박에 나섰다.

반면 신 회장 측은 "주주는 열람등사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상법상 악의적 목적 등에 의한 경우엔 열람등사 신청을 제한한다"며 가처분 신청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면세점 사업 및 상장을 저지하고 현 경영진을 압박해 자신의 경영권 복귀를 위한 개인적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가처분 신청은 형사 소송 등으로 가기 위한 전략"이라며 "롯데가 국민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하는 전환을 저지하고 신동빈 회장의 경영 성과에 타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가처분 신청은 신격호, 신동주 두 사람의 이름으로 제기됐지만, 이날 심문은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것으로만 분리해 진행됐다.

신청인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피신청 회사인 롯데쇼핑의 대표이사로 있어 절차상 부적합하다는 신 회장 측의 문제 제기를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의 대표자를 롯데쇼핑 대표에서 감사로 변경한 다음에 신 총괄회장을 신청인에 포함시키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공방이 치열한 점을 감안해 통상 3주 후로 잡는 2차 심문 기일을 5주 후인 오는 12월 2일 오후 4시로 정했다.

/연미란 기자 actor@metroseoul.co.kr

'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 신설 추진' 논란

"대법관의 꼼수… 설치안 폐기해야"

경실련, 대법관 증원 등 실질적 개선 모색 촉구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방안의 대안으로 대법원 내 상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데 대해 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대법원 상고 특별재판부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고법원 설치안이 법조계, 시민사회의 반대로 통과가 어려워지자 대법원이 부린 꼼수"라고 지적했다.

최근 대법원이 상고 특별재판부를 상고법원 설치안의 수정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경실련은 "이번에도 대법원은 부처 협의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가 필요한 정부입법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절차를 회피한 것은 대법원의 야욕과 사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방법원장들이 지역에서 상고법원 홍보 등을 통해 입법 활동에 관여하며 국회의원들에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 대법원의 상고법원 추진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법원이 제시할 수정대안에는 대법원 내 상고 특별재판부가 배당 사건을 대법원 소부나 전원합의체에 보낼 수 있고 대법원 소부나 전원합의체가 특별재판부의 선고 전 사건을 가져올수 있게 하는 직권이송명령 제도의 도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상고법원제도가 4심제로 운영될 가능성에 대한 비난을 직권이송명령 제도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대법관이 아닌 일반법관이 특별재판부 소속 판사로서 사건을 심리하고 이들의 임명을 상고법관 추진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에 따른다는 부분도 우려했다.

최종심을 담당하는 법관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절차와 대통령 임명절차를 두고 있는 헌법 규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상고 특별재판부 역시 국민들의 이해관계보다는 대법관들의 사적 이익만을 고려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의 권위 옹호를 고민하기 전에 대법관 증원과 같이 국민들의 사법적 고통을 해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상고심 제도 개선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며 상고법원과 상고 특별재판부 설치안을 부결·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유선준 기자

朴 대통령·아베, 내달 2일 첫 정상회담

관계발전 방안 등 교환 위안부 문제 논의 주목

1일 한·일·중 정상회의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내달 2일 서울에서 첫 한·일 정상회담을 한다.

또한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내달 1일 청와대에서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2012년 5월 이후 3년 만에 재개한다.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은 28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제6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박 대통령 주재 하에 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한·일·중 3국 정상회의 계기에 아베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발전 방안 및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올해 3월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의 국장 참석 때와 지난해 11월 베이징(北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등에 아베 총리와 만나 환담했으나 회담을 한 적은 없다.

양국 정상이 머리를 맞대고 현안을 논의하는 것도 2012년 5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 간의 회담 이후 3년5개월여만이다. 특히 그동안 일본의 거듭된 과거사 도발로 양국 관계가 경색됐던 만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서 아베 총리의 진전된 입장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 수석은 한·일정상회담 의제와 관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비롯해 한일 양국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내달 1일 한·일·중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한다고 공식발표했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6번째이지만, 이번 회의는 우리 정부의 주도로 2012년 5월 이후 3년 5개월여만에 재개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수석은 3국 정상회의의 공동합의문 채택 여부와 관련, "3국 정상회의가 열리면 공동성명이 채택돼 왔다"며 "이번에도 3국 정상회의 결과로 채택하기 위해서 외교적 교섭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오는 31일 중국의 리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 만큼 한·중 정상회담(31일)→한·일·중 정상회의(11월1일)→한·일 정상회담(11월2일)으로 이어지는 정상외교 일정을 소화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동북아 3국 협력 체제 복원 구상을 본격적으로 진전시켜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유선준 기자 rsunjun@

검찰총장 후보 '김수남·김경수·박성재·김희관' 4파전

김진태(63·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의 뒤를 이을 차기 총장 후보가 4명으로 좁혀졌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28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수남 대검차장(56·대구), 김경수 대구고검장(55·경남 진주), 박성재 서울중앙지검장(52·대구), 김희관 광주고검장(52·전북 익산) 등 4명을 최종 후보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이날 뒤 무기명 투표를 통해 8명의 천거 대상자 중 4명을 추천후보로 결정했다.

사법연수원 16기인 김 차장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은 모두 연수원 17기다.

추천위는 이날 결정된 후보들을 김현웅(16기·56) 법무장관에게 추천하고, 김 장관이 이 가운데 1명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는 절차를 밟는다. 최종 제청된 후보자 1명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 인선이 마무리된다.

김 총장의 임기가 오는 12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는 늦어도 11월 중순까지는 마무리될 전망이다.

/연미란 기자


HAPPY WATER
100% 천연암반수로 만든
부드러운 소주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가을을 물들이는
부드러운 한 잔
부드러운 소주의 처음, 처음처럼
경고 :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중 사고 발생률을 높입니다

LG전자 '에어케어'로 세계시장 노린다

<Air Care>

청정·가습 되는 '퓨리케어'로 도전장
조성진 사장 "30개국으로 판매 확대"

LG전자가 에어컨, 제습기,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을 포함하는 '에어케어(Air Care)' 사업을 대폭 확대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

LG전자는 28일 서울 여의도동 LG트윈타워에서 조성진 H&A(홈어플라이언스&에어솔루션)사업본부장(사장), 최상규 한국영업본부장(사장), LG전자 광고모델 손연재 선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LG전자는 공기청정기와 프리미엄 가습기를 통합한 신규 브랜드 '퓨리케어'를 선보였다. 퓨리케어는 'Pure(순수한)', 'Purify(정화하다)'와 'Care(돌보다)'의 합성어다. 고객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공기를 제공해 건강한 삶에 기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LG전자는 이달 퓨리케어를 국내에 선보인 후 내년에는 해외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 2013년 중국, 러시아, 중동 일부 국가 등에서 공기청정기와 프리미엄 가습기의 해외사업을 시작한 LG전자는 올해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으로 진출지역을 확대한다. 향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시장에 순차적으로 진입해 현재 10여개 국가에서 진행하는 퓨리케어 사업을 3년 안에 30개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같은 기간 퓨리케어 제품의 글로벌 판매량은 올해의 5배 규모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이날 LG전자는 퓨리케어 공기청정기 4종과 퓨리케어 프리미엄 가습기 5종을 국내에 동시 출시했다.

LG 퓨리케어 공기청정기는 국내 최초로 먼지 입자의 지름이 1㎛(마이크로미터)인 극초미세먼지를 감지할 수 있는 PM 1.0센서를 탑재했다. 상단 디스플레이를 통해 공기 속에 있는 먼지 농도를 수치로 표시하고 4가지 색상으로 공기 청정 상태를 알려준다. 공기가 깨끗하고 쾌적할수록 빨간색에서 파란색으로 변한다.



LG전자 H&A사업본부장 조성진 사장, 광고모델 손연재 선수, 한국영업본부장 최상규 사장(왼쪽부터) 등이 28일 서울 여의도동 LG트윈타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공기청정기와 프리미엄 가습기 통합 브랜드인 '퓨리케어' 신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공기청정기 대표 제품(모델명 AS110WBW)에는 처음으로 사물인터넷(IoT) 기능을 탑재했다. LG전자 가전제품의 스마트홈 서비스 전용 애플리케이션 '스마트싱큐'를 이용하면 외부에서도 스마트폰을 통해 실내 공기상태를 확인하거나 제어할 수 있다. 실내 공기의 기간별 오염도나 필터 교체 시기, 청소 시기도 확인 가능하다. 출하가격은 모델별로 30만~50만원대다.

프리미엄 가습기 신제품은 세균들이 기생하기 어려운 미세한 크기의 수분을 공급한다. '퓨리케어' 가습기(모델명 HW500PAV)는 수조 속의 위생까지 고려해 UV(자외선) 살균 기능을 적용했다.

세계 최초로 UV LED를 탑재해 세균이 번식하지 않도록 6시간마다 90분 동안 자외선으로 수조를 살균해 냄새와 물때를 최소화한다. 최대 가습량을 기존 400cc에서 505cc로 늘리고 가습 면적도 최대 28㎡에서 35㎡로 확대했다. 가격은 모델별로 20만~40만원대다.

LG전자는 이번 퓨리케어 신제품을 대상으로 가전업계 최초로 핵심 부품인 인버터 모터에 대해 10년 무상 보증을 실시한다. 향후 공기청정기와 프리미엄 가습기에 이어 차별화된 정수기 제품도 퓨리케어 브랜드로 출시할 계획이다.

LG전자 H&A사업본부장 조성진 사장은 "에어컨과 제습기는 '휘센' 브랜드, 공기청정기와 프리미엄 가습기는 '퓨리케어' 브랜드를 사용해 에어케어 사업을 펼칠 것"이라며 "쾌적하고 건강한 공기에 대한 오랜 연구와 사업 경험을 기반으로 LG만의 차별화된 에어케어 풀라인업을 통해 에어케어 분야의 글로벌 대표 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불이익 아냐"

부산대 권혁 교수 주장
노사간 충분한 논의 필요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계약의 사후적 수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계약 내용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대상인가' 세미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중요한 것은 임금피크제 내용이 얼마나 합리적인가 여부"라며 "따라서 근로조건이 기존에 비해 현저하게 저하되는 근로계약 변경은 기존 근로계약 내용의 동일성을 본질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불이익변경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 도입 우수 사례로 꼽힌 LS전선과 SK하이닉스는 이날 세미나에 참석해 자사의 사례를 소개했다.

LS전선은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2~3년내 정년연장을 앞둔 직원들이 임금피크제에 대한 니즈가 있었다. 하지만 젊은 직원들의 눈치를 보느라 의견 표출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인사팀에서 이런 대상자들을 직접 찾아가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영층과 근로자들을 설득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정년연장 효과를 미리 검토하고 지난해 임단협 시점부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사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직원들의 부담감을 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해 시행 중이다. 임금피크제는 만 58세가 되는 해부터 전년도 임금의 10%를 감액 적용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참석해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원기간을 2018년까지로 3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피크시점 대비 10% 이상 감액된 임금에 대해 1인당 연간 10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이철행 전경련 고용복지팀장은 "내년 정년연장 시행까지 불과 2개월 남짓 남은 시점이지만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노조의 반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며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가 조속히 합의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삼성 '지펠아삭' 초반부터 흥행 속도 붙었다

출시 6주만에 5만대 돌파
땅속 저장환경 완벽 구현

삼성전자는 2016년형 지펠아삭 김치냉장고가 출시 6주 만에 5만대 판매를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3도어 스탠드형 김치냉장고 'M7000' 모델은 전년 동기 대비 65% 이상의 높은 판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M7000은 지펠아삭만의 메탈그라운드 기능을 강화해 김치 맛을 아삭하게 지켜준다. 외형은 슬림하지만 넉넉한 수납공간을 갖춰 한정된 주방에서도 활용도가 높아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판매 성과에 대해 김치냉장고 교체 주기와 가을 이사철 수요가 맞물린 상황에서 발 빠르게 진행한 '고객사랑 대축제' 판촉행사로 보다 나은 구매 혜택을 고객



삼성전자 모델이 28일 논현동 삼성 디지털프라자 강남본점에서 출시 6주만에 5만대를 판매한 2016년형 삼성 '지펠아삭' 김치냉장고를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에게 제공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2016년형 삼성 '지펠아삭' 김치냉장고는 차가운 냉기를 오래 보존해 주는 메탈 소재를 김치가 직접 닿는 김치통까지 적용해 기존의 메탈쿨링커버, 메탈쿨링선반, 풀메탈쿨링서랍, 메탈쿨링커튼과 함께 김치가 가장 맛있는 땅속 저장 환경을 완벽에 가깝게 구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한 겨울 땅속처럼 김치를 아삭하게 보관해주는 '지펠아삭' 메탈그라운드의 우수성이 단기간 내 5만대 판매 돌파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LG전자-문화재청

'문화재지킴이' 협약 체결
올레드 TV로 문화재 소개

LG전자와 문화재청은 지난 27일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지킴이' 협약식을 갖고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LG전자는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일환으로 현재 경복궁에서 진행하고 있는 '다시 만난 우리 문화유산전'을 고궁박물관에서도 이날부터 시작한다. LG전자는 이 행사에서 미국, 러시아, 일본,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6개국 주요 박물관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유산들을 초고화질(UHD) 화질 영상으로 촬영해 올레드 TV로 보여준다. 고궁박물관 행사에서는 올레드 TV 23대가 동원됐다.

LG전자는 올해 처음 진행한 '대한민국 문화유산 전시회'를 내년에도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 7월에 열린 첫 행사는 국내 유형 문화재를 촬영한 사진들을 올레드 TV로 소개해 한국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정은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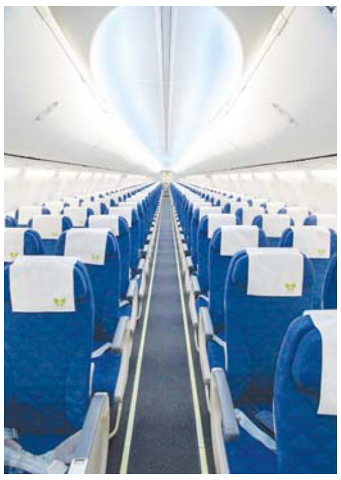
저비용항공사, 차별화 전략으로 승승장구

신형 항공기 도입·노선 확장
저렴한 비용으로 수요 증가
국내 54%, 국제 14% 고성장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신형항공기 도입과 운항 노선을 확장하는 등 차별화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말을 앞두고 LCC들이 신형 항공기 도입과 함께 연달아 신규 노선 취항 등을 통해 수익 창출을 이끌어 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선수'들이 늘면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현재 국내 LCC는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 티웨이 등 모두 5곳이다.

내달 상장을 앞두고 있는 제주항공은 지난해 저비용 항공사로는 처음으로 연 매출 5000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매출액 5106억원, 영업이익 295억원, 당기순이익 320억원을 기록했다.



진에어 B737-800 신규 생산 항공기 내부. /진에어

제주항공은 신규 노선 취항을 늘리고 있다. 제주항공은 주 3회 일정으로 부산과 오키나와를 잇는 노선에 신규 취항한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김해국제공항에서 오전 10시50분에 출발해 12시45분에 도착한다. 오키나와에서는 오후 1시35분 출발해 부산에는 오후 3시30분에 도착하는 일정이다. 토요일은 김해국제공항에서 오전 11시50분에 출발하며 오키나와에서 오후 2시35분 출발해 오후 4시30분 부산에 도착한다.

또 제주항공은 연말에 보잉 737-800 기종을 2대 더 구입할 계획이다. 이 기종은 국내뿐만 아니라 인접 동남아시아까지 비행이 가능하다. 연말에 2대가 추가되면 제주항공은 총 22대 항공기로 30개노선(국내 4개, 국제 26개)을 운항하게 된다.

아시아나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은 아시아나가 운영하는 중·단거리 노선을 이어받아 취항 7주년만에 빠르게 성장했다. 에어부산은 국내선 3개·국제선 15개 총 18개 국·내외 노선에 취항하며 연 4000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탄탄한 지역항공사로 발전했다.

진에어는 올 7월부터 신형 항공기를 연속해서 도입하며 사용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LCC업계 체질개선에 집중하고 있다. 진에어는 지난 21일 미 보잉사가 갓 생산한 B737-800 1대를 17호기로 도입했다. 여기에 신규 노선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 진에어는 주7회 일정으로 인천에서 다낭을 잇는 신규 노선 취항으로 연간 약13만4000여석을 공급할 방침이다.

진에어는 이번 취항으로 태국과 필리핀,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저비용항공사 중 동남아 지역(5개 국가에 8개 노선)에서 가장 많은 노선을 운항하게 됐다. 오는 12월에는 필리핀 보라카이와 베트남 하노이, 태국 푸켓 노선 취항을 앞두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얼리버드 요금, 타임 핫세일, 노선 취항 등에 따른 특가 운임 프로모션 등 다양한 운임을 바탕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노선 면에서도 중국 6개 정기노선(제남·심양·상해·대련·하얼빈·연길)을 포함해 국내 저비용 항공사 중 가장 많은 중국 노선을 운항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대구를 거점으로 국내선 제주도 운항을 개시한 데 이어 상하이, 오사카, 괌 등으로 노선을 확장하고 있다. 영호남 지역민들이 인천공항이 아닌 대구에서 국제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티웨이항공의 목표다. 티웨이항공은 각 지역에서 현지 승무원을 채용해 지역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기반의 저비용 항공사를 표방하고 있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최근 LCC의 신규 노선 취항과 항공기 추가 도입 등으로 승객들의 탑승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저렴한 비용 덕분에 과거 항공을 이용하지 않았던 승객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곽성환 현대증권 연구원은 "LCC의 여객처리량 기준 점유율은 국내선 54%, 국제선 14%로 성장세가 거세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BMW, 미니 수원 전시장·서비스센터 오픈

구매부터 수리까지 원스톱 서비스

BMW그룹 코리아(대표 김효준)는 자사의 공식 딜러인 도이치모터스가 '미니(MINI)' 수원 전시장과 서비스센터를 신규 오픈했다고 28일 밝혔다.

MINI 수원 전시장은 연면적 1036㎡(313평)에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로 총 5대의 차량 전시가 가능하며 수원 서비스센터는 연면적 2027.29㎡(613평)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총 18개의 워크베이를 갖춰 일일 50대의 수리가 가능하다.



BMW MINI 수원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 /BMW

MINI 수원 전시장은 1층은 MINI 신차 전시장, 2층은 고객라운지로 구성돼 있으며 MINI 출고 고객을 위한 전용 핸드오버존, 가족 단위 방문 고객을 위한 키즈존을 갖추고 있다.

MINI 수원 서비스센터는 일반정비, 사고차 수리, 판금 및 도장까지 모든 수리가 가능하다. 서비스센터 1층과 2층은 접수실, 고객대기실, 일반정비로 이뤄져 있으며, 3층과 4층은 판금 및 도장시설,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이뤄져 있다.

김효준 BMW그룹 코리아 사장은 "MINI 수원 전시장은 경기권 최대 규모의 MINI 전시장으로, 고객이 차량을 구입한 지점에서 차량 AS까지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다"며 "수원, 용인, 동탄 지역 최초의 MINI 전용 서비스 센터를 통해 지역 고객들에게 보다 편리한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대한항공, 알리바바와 맞손

온라인 플래그십 스토어 개설
中 취항 외국 항공사 중 최초

"중국출발 대한항공 항공권은 알리바바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편리하게 구매하세요."

대한항공이 28일 중국 항저우에 위치한 알리바바그룹 본사에서 채종훈 대한항공 중국지역본부장과 정웨이빈 알리바바그룹 항공여행사업담당 부총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항공 플래그십 스토어 협약식 및 오픈 기념행사'를 가졌다.

대한항공은 중국에 취항하는 외국항공사 중 최초로 알리바바에 직영점 성격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함으로써 중국 내 온라인 여행 상거래 분야에서 선두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됐다. 온라인 플래그십 스토어란 고객들이 항공사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예약, 구매, 발권 등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 채널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플래그십 스토어의 오픈을 통해 매년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온라인 시장 트렌드에 부응하고 선도적인 IT 항공 서비스를 도입하는 항공사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게 됐다.

채종훈 대한항공 본부장은 "대한항공이 알리바바 플래그십 스토어를 개설함에 따라 중국의 온라인 상거래 영역을 넓히고 중국 출발 여행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로 다가갈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플래그십 스토어의 오픈을 기념해 구매 이벤트도 진행된다. 중국의 전자상거래 축제일인 광군제(11월11일) 당일 대한항공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중국출발 한국행 또는 미국행 항공권을 구매하는 고객은 중국 고유의 할인 쿠폰인 '홍바오'를 제공받는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플래그십 스토어를 통해 항공권과 여행상품을 구매하는 고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과 온라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한국지엠 창원공장, 美정부 친환경 사업장 선정

3년 간 에너지 11% 절약

GM의 10개 사업장 뽑혀
총 73개 친환경 사업장 보유
20년 간 5000여억원 절감

한국지엠주식회사(한국지엠)는 미국 환경보호국이 매년 친환경적 사업장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에너지 스타 챌린지 포 인더스트리'에 올해 GM의 10개 사업장이 뽑혔으며 이 가운데 한국지엠의 창원공장도 포함됐다고 28일 밝혔다.

'에너지 스타 챌린지 포 인더스트리'는 미국 환경보호국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의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참가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선정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각 사업장은 생산 단위당 에너지 사용량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최소 10% 절감해야 한다.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지난 3년간 절감한 에너지는 11%로 이는 총 709톤의 이산화탄소와 맞먹는다. 지난 2013년에는 보령공장과 창원공장이, 2014년에 부평공장이 에너지스타 사업장에 선정된 바 있다.

조연수 한국지엠 생산부문 부사장은 "한국지엠의 모든 임직원은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한 효율적 에너지 사용을 위해 전념하고 있다"며 "한국지엠은 엄격한 GM의 글로벌 친환경 정책에 대한 꾸준한 실천을 통해, 모든 임직원이 국내의 모든 사업장을 친환경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사업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 태양광발전. /한국지엠

GM은 이번 인증으로 총 73개의 친환경적 사업장을 보유하게 됐다. 이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전 세계 글로벌 기업 중 가장 많은 것이다. 지난 20년간 GM은 미국내 생산시설에서 약 40%의 에너지를 절감했다. 이는 약 4억3500만 달러(약 4933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런 꾸준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3년 3월, 미국 환경보호국으로부터 에너지 관리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낸 기업에게 주어지는 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GM은 2020년까지 에너지 사용량을 20% 절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실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 세계 설비의 에너지 사용량을 28%까지 줄인 바 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1%를 추가로 절감한 바 있다.

/양성운 기자

"사물인터넷이 궁금하면 코엑스로 오세요"

2015 IoT 국제전시회 개막

30일까지 제품·기술 선봬 SK텔레콤·KT·LGU+ 등 국내 정보기술기업 총출동







SK텔레콤 안내 요원이 '씽플러그'를 활용해 만든 데모용 로봇을 소개하고 있다.(왼쪽사진) KT 부스에서 관람객이 컨테이너 추적 보안관제 시스템을 살펴보고 있다.(가운데 사진) LG유플러스 부스에서 안내 요원이 '비즈 라이브컨트롤'을 소개하고 있다. /각 사

그 동안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사물인터넷(IoT)'을 개념적인 차원이 아니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려 주목을 끌고 있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가 주최하고 한국사물인터넷협회가 주관하는 '2015 사물인터넷(IoT) 국제전시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8~30일 개최되고 있다. 이곳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정보기술(IT)업체들이 Io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SKT "비닐하우스 원격제어"

SK텔레콤은 이번 전시회에서 90여평 규모의 단독 부스를 마련해 ▲IoT 인프라 ▲홈 ▲스토어 ▲팩토리 ▲팜 분야에서 총 13개 아이템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를 통해 SK텔레콤은 온도, 습도, 무게, 위치, 검침 등 단순정보를 측정해 처리하는 IoT 서비스에 특화된 전용망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LPWAN)'을 처음으로 시연한다. 저전력 장거리 통신 기술은 통신 반경이 수십킬로미터(㎞)로 넓고 전력 소모가 적어 단말 배터리 수명이 수년간 유지된다.

전용망과 함께 IoT 서비스를 기업과 개발자들이 직접 만들 수 있는 DIY 환경을 제공하는 플랫폼 '씽플러그(Thing Plug)'도 같이 관람하면서 발전하는 IoT의 최신 기술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상용화 단계 직전인 다양한 아이템도 선보였다. 그 중 팩토리 분야의 경우 근거리 무선통신 기술인 '비콘'을 활용해 재난 위치 알림과 비인가구역 출입관리, 이동 자산 위치 관리 등의 인력과 물적 자산을 관리하는 '스마트 이스케프'가 전시된다.

농업 분야에서는 LTE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비닐하우스 등을 원격에서 모니터링하고 제어할 수 있는 '스마트팜' 솔루션을 선보인다. 이 솔루션은 온도와 습도 등 다양한 환경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비닐하우스 개폐, 조명, 환풍기, 보일러 등 장비 제어를 통해 ▲생산성 증가 ▲노동력 절감 ▲운영비 절감 등도 가능하다.

◆KT '기가(GiGA) 토피아' 접목

KT는 사물인터넷 사업 협력체인 '기가 IoT 얼라이언스'를 전면에 내세운다. KT는 이번 전시회에서 ▲올레 기가 IoT 얼라이언스 ▲산업 IoT ▲홈 IoT 존을 중심으로 생활에 친근한 아이템에 적용된 다양한 솔루션을 보여준다.

기가 IoT 얼라이언스 존에서는 누구나 빠르고 쉽게 IoT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기가 IoT 메이커스'를 시연하고 기가 IoT 사업협력센터를 소개한다.

산업 IoT존에서는 IoT와 위성관제기술을 접목한 컨테이너 추적 보안관제 시스템과 위험물 운송차량의 도로 위험도를 미리 알려주고 사고 때 자동 인식해 즉시 대응하는 위험물 안전운송 통합관리 시스템 등을 선보인다.

홈 IoT존의 경우 모바일 앱 형태의 가정용 HD급 CCTV '올레 기가 IoT 홈캠'과 스마트폰으로 도어록·가스밸브 등 생활기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작동시키는 '올레 기가 IoT홈매니저'를 체험할 수 있다.

◆LGU+ '비즈 라이브컨트롤' 첫 선

LG유플러스는 이번 전시회에 30여종의 IoT 서비스를 전시하며, IoT 기반 실시간 영상 관제 솔루션 '비즈 라이브컨트롤'을 첫 공개한다.

비즈 라이브컨트롤은 고화질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해 원격지에 있는 장비나 시설물을 관리하고 긴급 장애 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실시간 영상 관제 솔루션이다.

이 솔루션은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 서비스를 진행, 다수의 지자체 안전총괄과는 물론 대형 공장 및 방송사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LG유플러스는 90여평 규모의 IoT 전시관을 통해 ▲U+ 스위치 ▲플러그 ▲열림감지센서 ▲가스록 ▲허브 등의 홈 IoT 서비스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산업 IoT 서비스를 전시한다.

홈 IoT 서비스에서는 스마트 도어록을 처음 만날 수 있다. 이는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문을 열 수 있는 서비스다. 등록된 카드키를 사용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가족의 귀가여부를 알 수 있다.

/정문경기자 hm0108@metroseoul.co.kr



삼성전자, 스마트기기 액세서리와 '텐 미닛 브레이크'

27일(현지시간) 독일 뮌헨 국제공항에서 열고있는 삼성전자의 스마트기기 액세서리 체험 캠페인 '텐 미닛 브레이크'에서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소비자들을 맞이하는 모습. 이번 캠페인은 이달 말부터 12월 초까지 독일, 폴란드, 영국의 주요 랜드마크와 도심에서 열릴 예정이다. 소비자들은 삼성전자의 스마트기기 액세서리가 전시된 2층 버스에서 다양한 제품을 체험하며 휴식할 수 있다. /삼성전자

청년창업투자조합 펀드 80억 도달

KT 조성한 지 5개월 만

KT가 지난 5월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KT-DSC창조경제 청년창업투자조합'이 신속한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KT-DSC창조경제 청년창업투자조합은 청년창업기업에 투자를 주목적으로 모태펀드 180억원과 KT그룹이 100억원 등 총 350억원 규모로 조성된 펀드로 5개월이 지난 현 시점 기준으로 누적 투자 금액이 80억원에 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KT는 창업 이후 추가 투자금액 조달이 어려워 난항을 겪고 있는 스타트 업을 위해 당초 2018년까지 총 4년에 걸쳐 집행하기로 돼있던 금액 중 24%를 6개월 만에 조기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투자 내용으로는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 육성기업인 모바일 게임 개발사 '트라이팟 스튜디오스'에 동반투자자들과 총 20억원의 투자 ▲초소형 전자기계 시스템(MEMS) 기술의 '스탠딩에그' 등 다양한 분야의 10개 업체다. /정문경 기자

넥슨, 모바일용 게임 '슈퍼판타지워' 공개

한국어·영어·중국어지원하는 '원빌드 전략'으로 세계 도전



2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열린 '넥슨 모바일데이'에서 김대훤 넥슨지티 이사(왼쪽부터), 이정근 넥슨지티 디렉터, 이상만 넥슨 모바일사업본부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넥슨

넥슨은 28일 서울 서초구 넥슨 아레나에서 4번째 '넥슨 모바일데이'를 개최하고, 모바일 신작 전략 시뮬레이션 롤플레잉 게임(SRPG) '슈퍼판타지워'의 개발 전략과 핵심 콘텐츠를 공개했다.

넥슨은 이날 행사에서 자사의 '글로벌 원빌드' 전략과 다양한 모바일 라인업 구축을 위해 도전하는 SRPG 장르 분석 및 출시 전략을 발표했다.

또 SRPG 장르를 모바일게임으로 최적화시킨 슈퍼판타지워의 핵심 시스템과 게임 내 영웅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 영상을 최초로 공개해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상만 넥슨 모바일사업본부장은 "글로벌 원빌드 정책은 최적의 시점에 세계시장에 진출해 폭넓게 유저를 확보하는 넥슨의 글로벌 모바일게임 전략"이라며 "슈퍼판타지워의 완성도 높은 탄탄한 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시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해 넥슨의 첫 글로벌 출시 게임으로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김대훤 넥슨지티 개발총괄이사는 "모바일게임 시장에 참신한 장르로 새로운 변화를 주고 싶었다"며 "그동안 많은 공을 들인 만큼 슈퍼판타지워가 모바일 SRPG를 대표하는 타이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넥슨지티에서 개발한 슈퍼판타지워는 SRPG가 지닌 특성을 모바일에 최적화해, 50여 명의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180여개의 던전을 한판 한판 깨나가는 재미, 캐릭터 간의 궁합과 지형 등 여러 전략 요소를 활용해 도전하고 성취하는 즐거움을 제공한다.

이정근 넥슨지티 디렉터는 "SRPG에서 가장 중요한 스토리에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썼다"며 "캐릭터 간 서브 스토리까지 갖춰 게임에 몰입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캐릭터 역시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게 보일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슈퍼판타지워는 넥슨이 전 세계에 동일한 버전을 제공하는 글로벌 원빌드 방식으로 출시하는 첫 번째 모바일게임이다. 오는 11월 5일 안드로이드, iOS 버전으로 동시 출시되며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번체)를 지원한다.

앞서 넥슨은 호주,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핀란드 4개국에 게임을 시범 출시(소프트런칭)하고, 글로벌 성공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넥슨은 현재 슈퍼판타지워의 사전 예약 이벤트를 공식 웹사이트(sfw.nexon.com)를 통해 실시하고 있다. /정문경 기자

핀테크에 꽂힌 금융권… 미래 세상 성큼

하나금융 생체인식시스템 내년 금융권 최초 도입

KB국민銀-월드비전 협력 간편결제 통한 기부 확산

은행에 맡긴 돈을 찾을 때 비밀번호가 아닌 안구를 사용한다. SF영화에서 보던 신기술이 국내에서도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다.

금융업계가 핀테크(금융+기술)를 잇따라 도입하면서 시중 은행에서 이같은 풍경이 조만간 펼쳐질 전망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국내 금융권 최초로 지문과 홍채, 안면 등 생체인식을 통한 본인확인 시스템을 내년 1월 도입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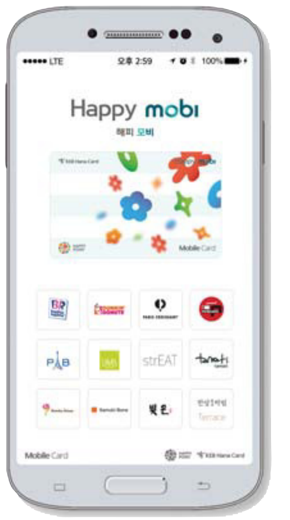
이를 위해 그룹은 국내 최대 정부출연 연구소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TRI는 글로벌 표준 사용자 인증 기술인 파이도(FIDO, Fast Identity Online)를 보유하고 있다. 파이도는 지문, 홍채, 안면인식 등 생체인증을 접목한 사용자 인증 플랫폼이다.

기존 공인인증서나 아이디·비밀번호 방식의 본인확인에서 생체인식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해킹에 의한 공인인증서 탈취 등 문제점이 발생하면서 파이도는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향후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 태블릿PC 이용, 대여금고 등 온·오프라인 분야에서 비밀번호와 공인인증서 대체 수단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급변하는 간편결제 시장에 FIDO 기술을 조기 적용해 핀테크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구축하겠다"며 "ETRI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핀테크 분야 신기술도 그룹 내 모든 관계사에 선도적으로 적용해 금융거래의 안정성과 보안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하나금융이 내년 1월 생체인식을 통한 본인 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하나카드의 모바일카드 앱.

BNK금융그룹 경남은행은 미래테크놀로지의 스마트OTP(일회용 비밀번호)를 도입해 내달부터 서비스한다.

스마트OTP는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의 NFC(근거리 무선통신) 기능을 활용해 IC카드와 접촉하면 일회용 비밀번호가 생성되거나 자동 전송된다.

이동원 경남은행 스마트금융부장은 "스마트 보안카드와 생체 행위 본인인증 기술 적용 등 핀테크 기술 도입을 통해 최고 수준의 전자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카드는 핀테크 스타트업인 한국 NFC·KG이니시스와 업무 제휴 계약을 맺고, 터치형 NFC간편결제 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NFC간편결제는 모바일 쇼핑을 할 때, 휴대폰에 신용카드를 직접 터치해 결제가 가능한 기술이다. NFC칩 인식 기능이 있는 휴대폰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를 터치하는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한편 핀테크로 인해 기부도 간편해지면서 나눔문화 확산이 기대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인 월드비전과 협업해 핀테크가 접목된 기부 단말기를 보급한다.

해당 단말기는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카드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카드를 터치하면 기부금이 결제되는 방식이다.

앞서 KB국민카드는 6월 별도 단말기 접촉 없이 모바일로 기부할 수 있는 'K-모션' 간편 기부를 카드업계 최초로 선보인 바 있다.

/이정필 기자 roman@metroseoul.co.kr

연금상품 수익률, 내년부터 문자로 통보

금감원, 가입자 권익 제고 판매·운용·지급 관행 개선

통합 비교공시시스템 오픈 '투자권유준칙'도 마련

앞으로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연금 금융상품을 한 눈에 비교할 수 있는 통합 비교공시시스템이 만들어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연금 금융상품 가입자 권익제고 방안'을 통해 연금상품 수익률과 수수료율을 문자로 통보하고 중도 인출이나 해지 시 세금 정산을 한번에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내년 1월 '금융상품 통합비교공시시스템'을 오픈해 현재 판매 중인 대부분의 연금 금융상품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개인의 나이, 희망 월납입액, 연금개시연령, 연금수령기간 등 원하는 조건에 맞는 연금저축상품을 조회할 수 있고, 가입 후 연평균 수익률과 예상 월연금액 등 핵심정보도 비교공시 서비스한다.

판매보수와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온라인 전용 연금 금융상품도 확대된다.


김용우 금융혁신국 선임 국장이 28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연금상품 판매와 관리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또 연금저축상품 가입자의 투자목적(노후보장), 투자기간(장기), 재산상황(은퇴자산) 등을 고려해 투자자에 적합한 상품을 권유할 때 기준이 되는 '투자권유준칙'도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연금상품을 판매하면서 은퇴자산 규모를 확인하지 않거나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연금저축 펀드에 일반 투자상품과 동일한 투자권유준칙이 적용되는 점을 보완한 것이다.

연금 운용 및 관리관행도 대대적으로 개선된다.

금감원은 내년 중 자산운용사 선정기준을 객관화하고 운용실적 사후평가를 강화하는 등 변액 연금보험펀드 운용 실태를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회사가 고객에 서면과 이메일 등으로 제공하는 수익률, 수수료율을 문자 메시지(SMS)를 통해서도 통지하도록 했다. 특히 연금 금융상품의 수익률, 연금수령예상액 등 통지내용과 통지주기(분기 1회)를 통일해 가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할 때 관련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도 사라진다. '연금저축 과세자료 조회시스템'을 통해 연금납입 확인서를 일괄 발급받고, 소득공제확인서 또한 온라인을 통해 즉시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6월 말 기준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잔액은 각각 107조원, 177조원으로 총 30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가입자도 매년 꾸준히 증가해 6월 말 기준 연금저축 545만 명, 연금보험 585만 명을 기록 중이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전 직원 동참, 생활 속 '물 절약' 실천

KB국민은행 '물사랑 캠페인'

KB국민은행은 지난 26일 42년만의 극한 가뭄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전 직원이 동참하는 생활 속 'KB 물 사랑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강우량 부족으로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무심코 버려지는 물을 절약할 수 있는 생활 속 작은 지혜들을 실천하기 위해 벌이는 것이다.

KB국민은행이 실천하는 'KB 물사랑 캠페인'은 1100여개가 넘는 영업점과 임직원 가정의 양변기 물탱크 안에 물을 채운 페트병을 넣을 예정이다. 이는 양변기 수조의 수량을 조절하여 절수 효과를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또 2만여명이 넘는 직원들이 각자 개인컵 사용을 생활화 할 예정이다. 양치할 때 개인컵을 사용할 경우 사용량이 회당 2ℓ 줄어드는 등 물 절약 뿐만 아니라 종이컵 사용량도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김문호 기자 kmh@



KEB하나은행은 지난 26일 인하대학교에서 '2015 하나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 후 정춘식 KEB하나은행 인천영업본부장(왼쪽 다섯번째)과 이재우 인하대학교 학생지원처장(왼쪽 네번째)이 장학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저소득층 학생 319명에 장학금 전달

KEB하나銀, 3억여원 지원

하나금융나눔재단(이사장 김한조)은 저소득가정의 성적 우수학생 319명을 장학생으로 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하나장학금'은 1989년부터 KEB하나은행이 국내 저소득가정 자녀의 학업 지원을 위해 운영해오던 장학제도다.

2006년부터는 나눔재단이 승계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고등학생 132명을 포함, 총 319명의 장학생에게 총 3억54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11월 말까지 KEB하나은행 전국 각 지점에서 장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를 방문해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경남은행

'평생자동이체대출' 출시

경남은행은 28일 개인고객들의 원활한 가계자금 운용을 위해 '평생자동이체대출'을 출시했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마이너스통장 형태로 운용되는 평생자동이체대출은 대출한도 내에서 사용과 상환이 자유롭다.

대출한도는 최저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12개월 잔액기준 코픽스(COFIX, 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적용, 영업점장이 정하는 경우 최저 연 5.11%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전득표 경남은행 소매금융팀장은 "평생자동이체대출은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자동이체 이용 고객의 편의를 고려한 신용대출상품"이라고 말했다.

/이정필 기자

롯데 '기업투명화' 시동… 언제쯤?

비상장 계열사 20곳 이미 상장요건 채워

그룹 "상장 계속 추진"

롯데그룹의 비상장 계열사 4곳 중 1곳은 당장 증시 입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비상장 계열사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데 적극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그룹 비상장 계열사 73곳 중 20곳이 유가증권시장의 상장 재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자본이 30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3년 평균 700억원 이상)이면 유가증권 상장이 가능하다. 또 최근 사업연도 영업이익, 법인세 비용 차감 전 계속 사업 이익, 당기순이익 등을 시현해야 한다.

동시에 ▲최근 사업연도 이익액 30억원(최근 3년 합계 60억원 이상) ▲최근 사업연도 자기자본이익률(ROE) 5%(최근 3년 합계 60억원 이상) ▲대형법인(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 ROE 3% 혹은 최근 이익액 50억원 이상(영업현금흐름) 등의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는 롯데그룹 비상장 계열사는 호텔롯데를 비롯해 롯데카드, 롯데리아, 우리홈쇼핑,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롯데로지스틱스, 롯데알미늄, 에프알엘코리아, 롯데상사, 롯데캐피탈, 롯데역사, 롯데엠알시,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씨에스유통, 롯데디에프글로벌, 부산롯데호텔, 대홍기획, 바이더웨이, 롯데디에프리테일 등이다.

롯데그룹은 지난 8월 그룹 지배구조 개선 차원에서 호텔롯데의 상장 계획을 밝혔다. 또 지난 27일에는 롯데정보통신의 상장을 재추진하기 위해 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롯데그룹 상장 재무요건 충족 비상장 계열사> (단위: 억원)

순위	회사명	업종	자기자본	매출액	순이익
1	호텔롯데	숙박	93,337	41,469	2,328
2	롯데카드	금융	19,168	16,086	1,487
3	롯데리아	식음료	5,961	9,871	341
4	우리홈쇼핑	홈쇼핑	6,378	8,692	840
5	롯데정보통신	SI/IT	5,821	5,607	123
6	코리아세븐	소매	2,735	23,756	231
7	롯데로직스틱스	운송	2,620	22,202	142
8	롯데알미늄	금속	9,393	9,967	88
9	에프알엘코리아	의류	2,488	8,954	813
10	롯데상사	도매	5,591	8,465	61
11	롯데캐피탈	금융	6,903	6,658	746
12	롯데역사	소매	6,903	6,517	491
13	롯데엠알시	화학	2,887	6,162	145
14	캐논코리아비즈니스솔루션	기계장비	2,078	5,847	87
15	씨에스유통	소매	907	4,309	98
16	롯데디에프글로벌	소매	1,498	3,409	128
17	부산롯데호텔	숙박	8,423	3,399	167
18	대홍기획	광고	3,245	3,280	142
19	바이더웨이	소매	1,615	3,099	33
20	롯데디에프리테일	소매	370	1,671	83

※ 2014년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료 = 신학용 의원실·한국거래소

상장 기업은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고, 금융감독원 등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만큼 기업 경영과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

현재 롯데그룹의 경우 81개 계열사 중 상장사가 8개에 불과해 국내 10대 그룹 중 계열사 상장 비중이 가장 낮은 편이다. 특히 형제 간 경영권 다툼으로 불투명한 지배구조 문제가 불거지면서 비상장 계열사의 상장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국민들이 더 실망하기 전에 지난 8월 발표한 지배구조 개선·투명성 제고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상장 요건을 충족하는 계열사들을 가능한 빨리 상장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나금융투자 오진원 연구원은 "비상장사의 상장 추진 시 오너 지분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양형모 연구원은 "신동빈 회장 체제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투명 경영을 통해 시장과 소통하려는 모습"이라면서 "롯데정보통신, 코리아세븐 등을 상장시킨다는 것은 지분 격차 확대를 위한 매개체로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그룹도 호텔롯데와 롯데정보통신에 이어 지속적으로 계열사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한국 기업으로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기업이 되겠다는 의지를 상장을 통해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삼성자산운용 'KODEX 코스피 상장지수펀드'

상장 두달 만에 순자산 1000억 돌파

출시 이후 2.5배 증가

삼성자산운용은 'KODEX 코스피 상장지수펀드(ETF)'가 상장 두 달 만에 순자산 1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출시 당시 400억원 수준이던 순자산이 2.5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27일 현재 1003억원, 에프앤가이드)

KODEX 코스피 ETF는 업계최초로 종합주가지수인 KOSPI 수익률을 따라가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KOSPI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 (750여개, 우선주·뮤추얼펀드 등은 제외)으로 구성된 한국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다. 투자자의 손쉬운 투자를 위해 이 상품의 가격은 코스피 지수의 10배 수준으로 책정됐다. 코스피지수가 2000pt일 경우 KODEX 코스피 가격은 20,000원 수준에서 거래된다.

주식시장을 대표하는 또 다른 지수로 KOSPI200이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중소형주가 양호한 성과를 보이면서 대형주 200종목으로 구성된 KOSPI200이 시장전체 수익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중소형주까지 모두 포함해 한국 주식시장 전체에 투자 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 KODEX 코스피 ETF를 개발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배재규 패시브총괄 전무는 "해외에서는 이미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전 종목에 투자하는 Total Market Index 투자가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750여개 종목을 추적오차 없이 관리하기 위해 운용역량과 노하우를 총동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문호 기자



삼성카드 주주환원 정책에 관심집중

"자사주 매입보다 '배당확대' 효율적"

수수료 인하문제는 과제로

삼성그룹이 주주가치 제고 방안을 계열사별로 발표키로 함에 따라 삼성카드의 주주환원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전문가들은 삼성카드의 경우 자사주 매입보다 배당성향(전체 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배당금 규모)을 확대하는 쪽이 더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최정욱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카드의 지나친 자본 해소를 위해선 자사주 매입에 그치는 것이 아닌 소각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이는 지금도 적은 유통주식수를 줄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 유통주식수 확대가 전제되지 않는 한 당장 자사주 매입과 소각 이슈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 연구원은 "삼성카드는 지속적인 배당성향 확대 등으로 비춰 올해 30% 중반의 배당성향이 가능할 것"이라며 "주당배당금을 1000원(배당성향 34.8%)으로 가정할 때 실제 배당금은 예상치를 웃돌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황석규 교보증권 연구원도 "삼성카드의 연말 배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삼성카드의 배당수익률을 2.4%(주당 1000원)로 예상했다.

한편 삼성카드는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문제를 과제로 안고 있다.

최근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사들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에 해당하는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적격비용은 카드사들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것으로, 금리 변화 등 시장상황을 반영해 3년마다 재산정한다.

금융권에서는 현재 평균 2.1% 수준인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이 1%대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수현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폭이 주가 등락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카드는 전일보다 0.52% 내린 3만82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김보배 기자 bobae@

키움증권

ELS·ELB 등 3종 공모 나서

내일 오후 1시까지 청약가능

키움증권은 연 7.5% 추구 지수형 주가연계증권(ELS)을 포함해 ELS,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 3종을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키움 제584회 ELS'는 KOSPI200, 유로스톡스50(EuroStoxx50)을 기초지수로, 6개월 주기의 조기상환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모두 최초기준가격의 90%(6·12·18개월), 85%(24·30개월) 이상이면 자동조기상환되며 연 7.5%의 수익이 지급된다. 만기평가일에 두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격의 80% 이상이면 세전 22.5%(연 7.5%)의 수익으로 상환된다. 투자기간 동안 두 기초자산의 종가 중 하나라도 최초기준가격의 55% 미만인 적이 있다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제124회 ELB'는 저위험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이다. 만기는 1년 6개월이며 기초자산인 KOSPI200지수의 종가가 만기평가일까지 최초기준가격의 120%를 초과해서 상승한 적이 없는 경우에 지수 상승률의 40%를 적용하여 최대 9.0%(연6.0%)의 수익을 지급한다. 그 외의 경우에는 만기시 원금과 1%의 수익만 지급한다.

이 상품들은 오는 30일 오후 1시까지 청약 가능하다. /김보배 기자

행복·건강 중시… 분양시장 '웰니스' 바람

<Wellness : 웰빙·행복·건강>

골프장·공원·바다 조망 문화·테마공간 등 갖춰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 둘레길·안전보행로 조성

최근 분양시장에서 웰빙과 힐링 열풍으로 '웰니스' 바람이 불고 있다. 웰니스는 웰빙(Well-being)과 행복(Happiness), 건강(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와 정신은 물론 사회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의미한다. 웰빙이 주로 육체적인 건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웰니스는 육체적인 건강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아파트의 역할이 주거의 기능을 넘어 여가, 문화, 건강을 책임지는 생활 전반의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곳으로 변화한 것.



경기도 고양 삼송동일 스위트 2차 단지에서 바라볼 수 있는 골프장(뉴코리아CC).

단지는 피트니스 센터나 골프연습장과 같은 기본적인 운동시설 커뮤니티는 물론이고 공원과 연계된 산책로, 공원과 바다 조망이 되는 입지를 갖추고 있다.

또한 다양한 테마공간도 조성된다. 상반기 공급된 단지 중에는 입주민의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환기 시스템이나 단지 내 중앙정수처리 시스템 등이 설치되기도 했다.

삼성물산이 30일 서울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길음뉴타운) 2구역에 짓는 래미안 길음 센터피스는 어린이를 위한 테마공간과 안전보행로 오렌지 밴드가 조성된다. 남측 공원으로 이어진 통경축과 1.6km길이의 건강둘레길은 입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도울 전망이다.

단지 내부 중앙 보행축에는 나무가 많고 물이 흐르는 커뮤니티 웨이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 외에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를 비롯해 유치원 1개소, 키즈 클럽 등 보육과 교육 테마를 강화한 커뮤니티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9층, 24개동, 2352가구로 지어진다. 일반분양 336세대 중 270세대가 전용면적 59㎡의 소형 아파트로 공급된다.

이랜드건설이 이달 한강신도시 Ab-12블록에 공급하는 이랜드 타운힐스는 단지 내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한 놀이시설 워터플레이, 워터데크와 단지 내 연못인 워터폰드 등으로 구성된 워터 가든이 마련된다.

단지는 전체 550가구가 전용면적 기준 72~84㎡로 구성된다. 전 가구가 전용 84㎡ 이하의 중소형 타입으로 제공됨에도 타입별로 복층 설계, 펜트하우스 등의 혁신평면이 적용된다.

동일이 30일 경기도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A10블록에 공급하는 고양 삼송 동일스위트 2차는 입주하는 동과 상관없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풍부하게 누릴 수 있는 4베이 설계가 적용된다. 동일은 단지를 180도 파노라마뷰의 개방감을 극대화한 친환경단지로 조성한다. 단지 바로 앞에는 산책로와 쉼터, 실내 배드민턴장 등을 완비한 한우물 숲길공원이 있다.

이외에도 일부 세대는 단지 남서측 뉴코리아CC의 조망권을 갖춰 사계절 내내 푸른 녹지를 즐길 수 있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5층, 7개 동으로 조성된다. 전체 834가구 규모이며 전용면적 66~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유형별로는 ▲66㎡ 394가구 ▲76㎡ 342가구 ▲84㎡ 98가구다.

유승종합건설이 11월 인천 소래논현 도시개발지구에서 분양하는 인천 논현 유승한내들 와이드오션은 단지 내 물놀이가 가능한 물빛놀이터가 조성된다. 단지는 376가구 모두 전용 56㎡ 단일면적에 4베이 평면 구성이 적용된다. 소형 아파트로서는 논현지구에서는 유일하게 바다를 바라볼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단지 인근에는 늘솔길공원을 비롯해 2km 길이의 해안가 조깅코스를 갖춰져 있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인프라 다 갖춘 '완성형 택지지구' 인기

입주 동시 편의시설 이용 각종 개발 호재도 풍부 수요 몰리며 집값 껑충

정모씨(48·남)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동 삼송택지지구 15단지 계룡리슈빌을 분양 받아 지난 2012년 입주했다. 하지만 택지지구 조성 초기 생활편의시설이 미비해 불편함을 느낀 정 씨는 1년간 거주하다 전세를 주고 일산으로 집을 옮겼다. 아파트 매매도 고려했지만 미래가치를 생각해 보유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1년 후 상황이 급변해 기반시설이 완비되고 전세가격도 올라 다시 집을 옮겨 생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단지의 시세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지난해 3억9750만원에서 올해 10월 4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입주와 동시에 생활편의 시설을 바로 이용할 수 있는 소위 '완성형 택지지구'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택지지구나 신도시 등은 지구를 조성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이 때문에 입주 1~2년차까지는 기반 시설 부족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지만 완성형 택지지구는 이런 불편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시세도 좋은 편이다. 올해로 개발 9년째를 맞는 삼송택지개발지구의 지난해 8월 아파트 거래가격은 3.3㎡당 1100만원 후반대에서 올해 9월 1284만원까지 상승했다.

<완성형 택지지구 분양 단지> ※자료 : 각사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총가구수	분양시기(월)
고양시 삼송	동일스위트 2차	66~84	834	10
인천 소래논현	유승한내들 와이드오션	56	376	10
김포 한강신도시	이랜드 타운힐스	72~84	550	10
동탄 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	73~86	990	11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8.0	73~86	951	11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9.0	85초과	689	11
김포 한강신도시	운양역 한신휴 더 테라스	59, 84	924	11
경기 남양주시	별내 효성해링턴 코트	84	307	분양중

연말까지 동탄2신도시와 한강신도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인천 소래논현 도시개발지구 등에서 대기 물량이 많은 이유다.

반도건설은 오는 11월 동탄2신도시 광역비즈니스콤플렉스 내 C5, C8블록에서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7.0(C5블록, 990가구)·8.0(C8블록, 951가구) 등 1941가구를 선보인다. KTX·GTX 동탄역(예정) 역세권으로 단지 인근에 오산천과 약 30만㎡ 규모의 중앙공원(가칭)도 있다.

반도건설은 같은 달 A98블록에서 동탄2신도시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9.0(689가구)를 공급한다. 단지는 동탄2신도시 특별계획구역 중 한 곳인 워터프론트 콤플렉스와 인접해 있다. 반도건설은 동탄신도시에서 검증된 특화평면에 신개념 테라스하우스까지 갖춘 프리미엄 아파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분양을 기점으로 동탄신도시에서만 1만여 가구의 대규모 브랜드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랜드건설은 이달 한강신도시 Ab-12블록에서 전체 550가구가 전용면적 기준 72~84㎡로 구성된 복합단지 이랜드 타운힐스를 공급한다. 타입별로 복층설계와 펜트하우스 등의 혁신평면은 물론 단지 내 4개 테마가든, 어린 자녀를 위한 유럽피안 키즈 빌리지 등의 아이디어가 적용됐다. 단지 외부에는 운양역과 초중고교, 공원 등이 인접해있으며 마포와 상암, 여의도, 마곡지구 등 주요 업무지구도 가깝다.

유승종합건설은 10월 인천 소래논현 도시개발지구에서 인천 논현 유승한내들 와이드오션 분양에 나선다. 단지는 376가구 모두 전용 56㎡ 단일면적에 4베이 평면 구성이 적용되며 소형 아파트로서는 논현지구에서는 유일하게 바다조망이 가능하다.

/박상길 기자

대우건설, 알제리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대우건설은 지난 26일(현지시각) 알제리 수도 알제(Algiers)에서 알제리 폐기물개선 마스터플랜 최종보고회를 실시하고 한국·알제리간 환경협력을 강화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 앞서 환경부·대우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로 구성된 한국대표단은 알제리 정부 측과 제2차 양국 환경 협력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 환경부와 알제리 수자원 환경부는 양국간 환경협력 양해각서(MOU)를 바탕으로 후속사업 추진을 협의하고 향후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고회는 환경부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한국 기업의 해외 환경시장 진출을 위해 마련한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 프로그램'을 통해 추진됐다.

환경부가 8억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고 대우건설은 동명기술공단, 선진엔지니어링, 벽산엔지니어링, 토방토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1월까지 20개월동안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알제리에서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사업을 완료한 것은 2011년 엘하라쉬 하천 복원사업을 직접 발굴한 이후 두 번째다.

/박상길 기자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거제' 내일 견본주택 오픈

현대건설은 30일 경남 거제시 상동동 110번지(상동4지구 A3블록) 일원에 '힐스테이트 거제'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단지는 지하 2층, 지상 21~25층, 11개동 1041세대 규모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84㎡A 552가구 ▲84㎡B 340가구 ▲119㎡ 146가구 ▲138㎡ 1가구(펜트하우스) ▲141㎡(펜트하우스) 1가구 ▲142㎡(펜트하우스) 1가구다. 전용면적 84㎡이하 중소형 타입이 85% 이상을 차지한다.



힐스테이트 거제 산책로 조감도. /현대건설

단지 인근 거가대교를 이용하면 차량으로 부산까지 약 1시간내 이동할 수 있고, 신거제대교를 통해 통영과 경남지역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11월 3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청약 접수가 진행된다. 당첨자는 11월 11일에 발표되며 계약기간은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될 계획이다. 입주는 2018년 4월로 계획돼 있다.

/박상길 기자

수능 D-14… 수험생 마케팅 불 붙었다

대형마트 '빅3', 문구용품부터 건강식품까지
11월 11일 빼빼로데이 연계마케팅도 실시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2주 앞둔 가운데 국내 대형마트 '빅3'가 수능마케팅을 본격화하고 있다. 초콜릿·찹쌀떡을 비롯해 홍삼·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까지 수험생을 위한 기획전을 내놓는 한편 빼빼로데이와 연계한 상품까지 구성해 11월 매출 신장을 꾀하고 있다.

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수험생을 위해 문구상품, 건강식품, 초콜렛, 엿·떡 등을 판매하는 수능기획전을 열고 있다. 컴퓨터용 싸인펜 5본을 1220원에, 호찹 찹쌀떡 10개입을 1만원에, 스윗니모 초콜릿 2종 컬렉션을 1만5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또 11월 2일부터는 빼빼로 행사매대를 설치하고 수능 기획 빼빼로 패키지 상품도 판매한다.

홈플러스는 랍스터를 수험생 마케팅 상품으로 내세웠다.

홈플러스 측은 "10월 말에 어획된 랍스터는 갑각질이 단단해지고 영양소를 구성하며 살이 차오르는 시기여서 특유의 맛과 향이 좋다"며 "랍스터는 지방·콜레스테롤의 함량이 적고 단백질, 오메가3, 키토산 등 성분이 풍부해 수험생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29일부터 11월 4일까지 전국 141개 점포에서 랍스터 1마리(500g 내외)를 1만2000원에 판매한다. 킹크랩은 100g당 4000원이다. 또한 수능 시험에 필요한 사인펜·학용품, 건강식품, 초콜릿, 보온도시락 등 35개 품목을 합리적인 가격에 내놨다.



이마트 수능기획전 홈페이지 갈무리. /이마트 홈페이지

롯데마트는 29일부터 일주일간 '수험생 특별 기획전'을 진행해 다양한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다. 한삼인 순수홍삼(50㎖ 20포)을 2만2500원에, 천호 블루베리 진액(80㎖ 20포)과 천호 흑마늘 진액(80㎖ 20포)을 각 2만8000원에 판매한다.

롯데마트 측은 "수험생 특별 기획전을 통해 판매되는 건강즙은 수험생들의 건강·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비타민, 홍삼정 등 건강기능식품도 정상가 대비 10% 할인한다. 통큰 홍삼정(240g)은 8만5500원에, 통큰 프리미엄 종합 비타민(2000㎎ 180정)을 1만5000원에 판매한다. 수입 초콜릿도 30% 할인한다. 페레로 로쉐 T-30(375g)을 1만2250원에, 시모아 트러플초콜릿 클래식(200g)을 4880원에, 로아커 초콜릿 밀크(87g)를 2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수능과 빼빼로데이를 연계한 상품도 선보인다. '롯데 수능북 빼빼로'를 5760원에, '롯데 수능연필 빼빼로'를 7680원에 판매한다.

변지현 롯데마트 마케팅전략팀장은 "수능이 다가오며 자녀·친지를 응원하고자 하는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고객 수요를 고려해 상품을 저렴하게 선보이는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롯데백화점 '이태리&프랑스 페어' 진행



창립 36주년 기념, 내달 3일까지 30여 브랜드 상품 한정 판매

롯데백화점이 창립 36주년을 기념해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본점·잠실점·부산본점에서 '이태리&프랑스 페어'를 연다.

듀베티카, 아스페시, 울리치, 바세티 등 30여 브랜드의 상품을 들여와 이번 행사 동안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대표 상품은 이태리 캐주얼 브랜드 울리치의 아크틱 패딩 99만원, 이태리 패딩 페스포우 라쿤다운 패딩 13만8000원이다. 이태리 유명 명품 브랜드의 생산 공장에서 직소싱한 팬츠·데님 20여 스타일 제품도 10만~20만원에 판매한다.

또 롯데백화점은 10억원 물량의 이태리, 프랑스 와인도 준비했다. '탈로 프리미 티보 디 만두리아'를 2만5000원, '트리가이오'를 1만5000원에 판매한다.

/정용기 기자



롯데월드몰, 개장 1주년 기념 '10년전 가격에 드립니다' 행사개최
롯데월드몰은 1주년 기념으로 테마 스트리트 '서울서울3080'에서 내달 6일부터 15일까지 '10년 전 가격에 드립니다' 행사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모델이 행사에 앞서 다양한 먹거리를 소개하고 있다. /롯데자산개발

현대홈쇼핑 "TV머니로 결제하세요"

현대홈쇼핑이 홈쇼핑 업계 최초로 선불 충전식 결제수단 'TV머니'를 도입했다고 28일 밝혔다.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말 신한은행과 'T-커머스 시장 선도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새로운 결제수단을 개발해왔다.

현대홈쇼핑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선불 충전식 결제 수단인 'TV머니'는 사용할 금액을 올레 IPTV 내에서 충전 한 뒤, 홈쇼핑 방송 시청 중 리모콘을 이용해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기존 결제 방식인 현금, 카드, H포인트 외에 'TV머니'를 추가로 도입해 결제수단을 다양화했다.

한편 현대홈쇼핑은 다양한 간편 결제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고객들의 편리한 홈쇼핑 주문을 돕고 있다. 현재 '페이나우'와 '페이코' 등 이용가능하며, 카카오페이, 시럽페이 등의 신규 간편결제 시스템도 조만간 선보일 예정이다.

/유현희 기자 yhh1209@

G마켓

농산물 직거래 행사 진행

G마켓이 내달 8일까지 '2015 농산물 직거래 로컬푸드 페스티벌'을 연다고 28일 밝혔다.

농산물 직거래 로컬푸드 페스티벌은 중간상인을 통하지 않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는 직거래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28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된다. 올해는 G마켓을 통해서도 농산물 직거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G마켓은 행사 기간에 20여개 지역별 인기 농산물을 산지 직송으로 할인 판매한다. 대표상품으로 '흙살림 유기농 토마토(3kg)'를 2만3000원에 선보이며, '춘천닭갈비(1.5kg)'는 2만7080원에, '유기농 딸기잼(600g)'도 7600원에 판매한다. 이외에도 '철원 오대쌀(20kg)'을 6만5080원, '강원도 속초 해음 명태회(400g)'를 9500원에 판매한다. /정용기 기자



위메프

'무민'과 컬래버 제품 선보여

위메프는 핀란드 캐릭터 '무민'과 손잡고 생활용품과 가구, 인테리어에 관련된 컬래버레이션 제품을 선보인다고 28일 밝혔다.

무민은 1945년에 핀란드에서 탄생해 70년 동안 사랑 받아온 핀란드 국민 캐릭터다. 위메프는 무민과의 독점 계약 체결을 통해 생활용품과 인테리어 상품의 캐릭터 개발과 상품 판매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위메프는 벽걸이·스탠드 에어컨 커버, 선풍기 커버, 다리미판, 옷커버, 옷걸이, 원터치 모기장 등을 판매한다. /정용기 기자

롯데마트

오늘부터 '36주년 기획전' 2탄

롯데마트는 롯데쇼핑 창사 36주년을 맞이해 29일부터 '창사 36주년 특별기획전 2탄'을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롯데마트는 내달 1일 '한우데이'를 맞아 29일부터 일주일간 전점에서 '1등급 한우 전품목 할인전'을 열어 인기 한우 부위를 정상가 대비 최대 40% 저렴하게 판매한다. 이번 할인행사는 등심, 국거리, 불고기 등 한우 부위 전품목이 해당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인기 완구 상품인 '터닝메카드 만타리·프린스콩'을 각 1만8400원에 선보인다. /정용기 기자



현대백화점

44주년 맞아 전국서 사은축제

현대백화점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8일까지 창사 44주년을 맞아 전국 15개 점포에서 사은대축제를 진행한다.

창사 44주년을 기념해 점별로 패션잡화, 아동의류, 스포츠 등 총 44개 아이템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압구정본점은 벨그라비아 캐시미어 100% 니트 52만원(기존가 65만원), 미꼬 주얼리 다아이몬트 0.2캐럿 더블링 499만원(기존가 690만원) 등에 판매한다. 무역센터점은 노비스 패딩 47만6000원(기존가 68만원), 마나스 앵글부츠 29만2600원(기존가 41만8000원) 등이다. /정용기 기자

본고장 佛도 인정한… SPC의 '제빵 외길'

창립 70주년 기념식
허영인 회장 "전세계 매장 수 2030년까지 1만2000곳 목표"

SPC그룹이 70돌을 맞았다.

SPC그룹은 28일 서울 대방동 SPC미래창조원에서 창립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허영인 회장은 창립 70주년 기념사를 통해 "작은 빵집인 '상미당'에서 출발한 SPC그룹이 지난 70년간 품질제일주의와 창의적 도전을 바탕으로 성장해 세계 최고의 베이커리 기업이 됐다"며, "변함없이 사랑해주신 고객 여러분과 전 임직원, 가맹점, 대리점, 협력회사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어 허 회장은 "2030년까지 매출 20조원을 달성하고 전 세계 1만2000개 매장을 보유한 '그레이트 푸드 컴퍼니(Great Food Company)'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자리를 10만 개 이상 창출해 세계 시장이 우리 청년들의 일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허영인 회장이 70주년 기념사를 하고 있다. /제공=SPC그룹

허 회장은 이를 위해서 차별화된 기술력 확보와 인재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연구개발(R&D) 분야에 2조 6000억원을 투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30년 매출 20조 달성 목표

허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허영인 회장은 "100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공헌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농어촌 지역사회, 사회적 약자 및 소외계층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창출하고 나눔과 상생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자"고 주문했다.

한편, SPC그룹 임직원들은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지난 8월부터 전국 총 700곳의 아동복지시설에 방문해 제품을 전달하고 생일케이크 만들기와 생일파티를 열어주는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했다.

SPC그룹은 1945년 황해도 옹진에 문을 연 빵집 '상미당'에 뿌리를 둔 해방둥이 기업으로 파리바게뜨,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찌, 빚은, 잠바주스 등 베이커리 및 식음료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종합식품기업 삼립식품 등을 운영하고 있다.

2013년 매출 4조원을 돌파했으며, 2000년부터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2014년 바게트의 본고장 프랑스 파리에 매장을 여는 등 세계시장에 K푸드 열풍을 선도하고 있다.

/유현희기자 yhh1209@metroseoul.co.kr

업계 첫 해외 진출한 '한국의 제빵왕'

허영인 회장은 누구?

'한국의 제빵왕.'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따라붙는 수식어다. 허 회장은 제조업 수준에 머물러 있던 국내 제빵 산업에 서비스와 지식산업을 접목시켜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프랜차이즈 형태로 발전시켰을 뿐 아니라, 국내 제빵업계 최초로 해외에 진출해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 그는 서양의 음식으로만 여겨지던 '빵'에 한국 고유의 식문화와 SPC그룹만의 독특한 개성을 더해 한국식 베이커리 문화를 전파하는 전도사다. 새로운 시도를 거듭해온 그는 2014년 국내 제빵업계 최초로 빵의 본고장 프랑스에 진출했다. 빵이라는 용어가 프랑스어에서 유래했을 만큼 프랑스는 빵의 종주국으로 불린다. 미국, 일본 등 제빵 선진국의 기업들도 아직 프랑스 땅을 밟지 못했다. 이는 허영인 회장이 '제빵의 길'에 뜻을 품고 경영에 뛰어든 지 45년, 프랑스풍의 정통 베이커리를 표방하며 '파리바게뜨'를 만든 지 26년 만에 이뤄낸 쾌거다.

그의 맛과 품질에 대한 열정은 남다르다. 제과제빵에 대한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미국제과제빵학교(AIB)에 유학하며, 이론과 기술을 습득했고, 지금도 제품 하나하나, 점포 하나하나 스스로 점검하는 현장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유현희 기자

가공육 발암물질 지정… 마트 매출 '급감'

햄·소시지 등 가공육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발암물질 지정 소식에 국내 대형마트 '빅3' 가공육매출이 일제히 감소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가공육을 1군 발암물질로 지정했다는 소식이 나온 지난 27일, 대형마트 빅3인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가공육 제품 매출이 1주일 전 대비 15%가량 줄었다.

IARC는 26일(현지시간) 육가공식품을 1군 발암물질로, 붉은 고기를 발암가능물질인 2A급으로 규정했다. IARC는 보고서를 통해 매일 50g의 가공육을 섭취하면 대장암 또는 직장암 발병위험이 약 18%높아진다고 주장했다.

가공육 판매가 급감하자 한국육가공협회는 28일 WHO와 IARC를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육가공협회 최진성 국장은 "WHO의 보고서 때문에 국내 육가공식품 매출 하락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보고서는 가공육을 과다 섭취한 800명을 임상실험 대상자로 했기때문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정용기·김성현 기자

새로 나왔어요

롯데칠성 '칸타타' NB캔
390㎖ 대용량… 전문점 수준



롯데칠성음료가 원두캔커피 '칸타타'의 390㎖대용량 NB캔(New Bottle) 2종(사진)을 선보였다고 28일 밝혔다.

칸타타 390㎖캔은 커피 전문점에서 즐기는 대용량 사이즈의 커피를 어디서든 간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최근 소비자들의 커피 음용량이 증가하는 소비패턴이 확대됨에 따라 대용량 제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존 칸타타 제품 중 인기있는 프리미엄 라떼와 아메리카노 2종으로 구성됐다.

/김성현 기자

파스퇴르 '베네콜스타놀요거트'
콜레스테롤 흡수 방해 탁월



파스퇴르는 '식물 스타놀 에스테르'가 2600㎎ 함유된 '베네콜스타놀요거트'(사진)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식물 스타놀 에스테르는 인체의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방해하는 식물성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파스퇴르에 따르면 스타놀 요거트는 우유, 유산균, 식물 스타놀 에스테르 외에는 물 한 방울 첨가하지 않았다.

또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지방 함량을 1%로 낮췄다. 가격은 400g 기준 3300원.

/김성현 기자

트렌치코트에 앵클부츠… 세련미 폴폴~

로맨틱 데이트룩 제안

단풍놀이와 나들이가 늘고있다. 산과 공원, 캠핑장 등 야외에서 활동적인 데이트를 즐기기도 하지만 바쁜 직장인 커플들은 퇴근 후 평일 저녁을 이용하거나 근교에서 데이트를 즐기기도 한다. 때문에 출근할 때부터 데이트 스타일을 고민하는 이들이 많다. 패션업계는 다양한 스타일을 제안하며 직장인 커플 공략에 나섰다.

28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근교나 도심에서 퇴근 후 가볍게 데이트를 즐기려면 아웃도어보다는 활동성 있는 오피스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직장인이라면 평소에도 자주 입을 수 있는 데일리 아이템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경우 트렌치코트에 깔끔한 원피스를 매치해 평소 출퇴근 오피스룩은 물론 로맨틱한 데이트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여기에 캐주얼한 첼시부츠나 앵클부츠를 더해 세련되고 도시적인 스타일을 완성하는 것도 좋다.

페미닌룩은 물론 캐주얼룩에도 잘 어울리는 부츠 아이템은 매년 여성들에게 큰 인기다. 어떤 룩에 매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액세서리는 전체적인 스타일링을 더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버건디컬러의 시계로 포인트를 주면 깔끔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퇴근 후 근교 도심해서 연인과 데이트를 즐기려면 아웃도어보다는 활동성 있는 오피스룩을 추천한다. 특히 직장인이라면 평소에 자주 입는 평상복에 부츠와 시계 등으로 멋을 내는 것이 좋다.

버건디 액세서리로 포인트
남자 패션의 완성은 '시계'
모던·클래식 디자인 적당

로맨틱한 가을 남자로 변신하고 싶다면 클래식한 디자인의 코트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카키나 브라운 컬러 등 따뜻한 느낌의 코트를 셔츠, 터틀넥 등과 함께 매치해 부드럽고 댄디한 룩을 연출할 수 있다. 클래식 하면서도 감성적인 느낌의 손목시계를 더해주면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주말을 맞이해 야외에서 활동적인 데이트를 계획 중이면 편안하고 캐주얼한 아이템을 활용해 데이트룩을 연출해보자.

여성의 경우 올 가을 유행 상품인 데님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버튼식 데님 스커트나 귀여운 이미지의 오버올 제품을 티셔츠와 매치하는 것을 추천한다. 여성스러운 느낌을 더해주고 싶다면 미니백이나 프로피햇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남자의 완성은 시계다. 활동적인 디자인 보다는 모던하고 클래식한 디자인의 시계가 가을 분위기를 낸다. 한편 최근에는 커플 운동화가 큰 인기다. 겨울에도 신기 좋은 도톰한 소재와 남들과는 차별화된 유니크한 패턴 운동화는 데이트커플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김성현 기자 minus@

내일 충정로서 시간여행 떠나자

'충정로 섬시장' 행사
인근상인·자원봉사 시민 맞손 추억 되살린 문화공간 탈바꿈

충정로 일대 상인들이 과거의 서대문을 충정로 3가에서 그대로 재연한다.

오는 30일부터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가에서는 '충정로 섬시장(부제:타임머섬, 오래된 미래)' 행사가 열린다. '충정로 섬시장'이 여느 행사와 다른 점은 충정로에 있는 상점들이 직접 참여해 꾸미는 행사라는 것이다.

행사 당일 충정로 3가 일대와 가게들은 향수를 간직한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된다. 거리에는 '타임머섬, 오래된 미래'라는 부제 아래 수공예품 프리마켓, 충정로 주민들의 옛날 사진전, 옛 서대문구 한국화 전시 등이 열린다.



충정로 은행나무길 행사 포스터.

인근 상점들은 1980년대 음악다방을 재연한 라이브 카페&베이커리, 조선시대 복장으로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 캐릭터 분장을 하는 카페 등으로 내부를 꾸미고 손님들에게 다양한 이벤트로 재미를 선사한다. 또 거리 한 편에서는 어쿠스틱 공연이 계속해 열려 충정로 섬시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예정이다.

한편 충정로 섬시장은 지난 6월 카페 '컵픽(CUPPICK)', '뉴욕베이커리&카페', '물뛴다'가 모여 1회 행사를 주최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은 인근 상인들과 축제를 기획하기 위해 지원한 청년 운영팀이 행사를 벌인다.

운영진 성다인 씨는 행사 이름과 관련해 "서울의 중심인 서대문구 한복판에 옛것을 간직한 충정로 3가가 마치 섬 같다는 이유로 행사 이름을 짓게 됐다"며 "충정로 3가 일대의 상권 강화를 위해 기획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서울시, 알바생 권리 알리기 나서

내달 16일까지 공모 최고 상금 100만원



서울시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공모전을 개최한다. 28일 서울시는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권리를 홍보하는 영상물과 인쇄물을 11월 16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제대로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아르바이트 청년의 현실을 진단하고 시에서 2013년 9월 23일에 발표한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장전(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보장, 근로시간준수, 초과근무수당 지급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아르바이트 청년이 누려야 할 권리를 명쾌하고 재미있게 표현한 영상과 인쇄물이면 된다. 공모전 모집은 영상과 인쇄물 분야로 나뉜다. 영상 분야는 10초 이상 1분 내로 50MB의 용량이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인쇄물 분야는 300dpi 환경에서 작업한 JPEG파일을 A2(420×594㎜)사이즈로 제출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11월 16일까지 이메일(oh@albaright.com)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당선작은 12월 2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시상은 분야별로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선정하며 최고 상금은 100만원이다. 수상작은 향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 홍보 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내 손안에 서울(mediahub.seoul.go.kr)과 아르바이트권리 홈페이지(www.albaright.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이계열 청년정책담당관은 "참가자와 작품을 접하는 모두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아르바이트 청년에 대한 권리를 다시 생각해보고 향후 권리가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더 많은 청년의 아르바이트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서울메트로, 안전강화·적자해소 위해 머리 맞댄다

오늘 발전방향 놓고 세미나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안전관리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28일 서울메트로(사장 이정원)는 29일 오후 3시부터 용답동 소재 서울교육문화센터에서 '서울메트로 안전관리 현황 및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지하철은 노후화로 사고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하철의 송배전선 중 기대수명 25년이 지난 전선은 총 619㎞이며 이는 전체의 31%에 달한다. 또 내진 기준 등 정부와 서울시의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시설보강에 상당한 예산이 필요하다.

재투자가 시급하지만 2022년까지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만 3조가 넘는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운영기관 자체 조달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수송원가의 70% 수준에 불과한 운임구조, 해마다 증가하는 무임수송 등으로 만성적자에 시달리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지하철의 이러한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메트로 정수영 안전관리본부장이 '안전관리 현황과 개선방향'을 발표하고 9명의 패널이 안전투자비 마련을 위한 현실적 대안에 대해 토론하는 순으로 3시간에 걸쳐 열린다. 토론에는 승강장안전문 유지보수 업체인 은성PSD 사장도 참석해 필수 안전업무의 직영화와 자회사 전환 문제도 논의될 예정이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서울지하철의 현 실태를 명확히 진단하고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3만원에 무한 생맥주 '할로윈 파티'

쉐라톤인천 호텔
31일 '몬스터들의 토요일 밤' 몬스터 분장땐 입장료 할인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쉐라톤인천 호텔은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오후 9시부터 오전 12시까지 '몬스터들의 토요일 밤'이라는 콘셉트로 할로윈 파티가 개최한다.

신나는 DJ 뮤직과 함께 파티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입장료는 3만원이다. 입장고객에게는 웰컴 드링크로 할로윈 스페셜 칵테일을 한잔씩 무료로 제공한다. 스낵을 곁들인 감자튀김 안주와 카스 생맥주가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다.

간단한 할로윈 액세서리 착용하면 입장료를 10% 할인 받을 수 있다. 또 각자의 개성에 맞게 할로윈 분장 혹은 리얼한 몬스터 분장을 하고 온 사람에 한해 입장료 20%를 할인한다.

할로윈 파티는 호텔 1층에 있는 트렌디 바 비플랫(Bb)에서 열린다. 바의 천장부터 바닥까지 호박 램프, 거미줄, 잘린 발목 모양의 공포스러운 아이템과 몬스터로 분장한 직원들로 호러스러운 할로윈 파티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문의 : 032-835-1713

/유현희 기자 yhh1209@

7시간 충분한 수면·비타민C 많은 제철과일 섭취 도움

직장인·수험생에 치명적인 '추곤증' 극복 요령

실내 적정습도 유지 가벼운 운동도 효과

추곤증은 환절기 계절성 질환으로 갑작스런 외부 기온변화에 몸속 생체리듬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면서 발생한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가을이 오면 온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신체리듬이 깨지며 추곤증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추곤증이 계속되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면역력 약화와 만성질환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수능을 앞둔 수험생이 추곤증을 겪을 경우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돼 학업에 지장이 생긴다.

추곤증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면서 자생한방병원이 28일 추곤증 극복을 위한 먹거리와 주거환경을 제안했다.

◆ 규칙적인 수면·침구선택 신중

추곤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면관리가 중요하다.

6~7시간 정도 충분한 수면시간을 확보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도록 해 정상적인 신체리듬을 회복·유지 해야한다. 수면의 양 만큼이나 양질의 잠을 청하는 것도 중요하다.

가을철 건조한 공기는 깊은 잠을 방해하는 요인이므로 50~60% 정도의 숙면을 위한 적정 실내 습도를 맞추고 침구의 바닥은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 제철 과일, 채소 섭취하고 가벼운 운동해야

추곤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식습관 조절도 중요하다. 먼저 탄수화물과 당 섭취를 줄이고 비타민 B나 C가 풍부한 제철 과일이나 녹황색 채소, 필수아미노산 함량이 높은 해조류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닭고기나 도라지, 컬리플라워, 양파 등 천연 백색을 띠는 '화이트 푸드'는 면역력 증진과 몸 속 산화 작용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어 몸에 활력을 부여하는데 도움이 된다.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을 움직여주는 것이 추곤증 극복에 효과적이다. 특히 걷기나 줄넘기, 자전거 등의 유산소 운동을 적절히 해주면 숙면을 취하기 쉽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긴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적어도 한 시간마다 한 번씩은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거나 주변을 걸어주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자생한방병원 유한길 원장

/김성현 기자 minus@

동아오츠카, 포카리스웨트 분말 할인

내달 7일까지 최대 20%



동아오츠카는 가을 단풍놀이 시즌을 맞아 포카리스웨트 분말 할인 행사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포카리스웨트 분말은 물 1ℓ와 섞어 빠르고 간편하게 이온음료를 마실 수 있도록 한 제품이다.

이번 행사는 이달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 열흘간 열리며 포카리스웨트 분말 10입 패키지를 10%, 20~40입 패키지를 20% 할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김성현 기자



AOA, 日서 첫 콘서트

첫 정규 앨범 발매 기념
다채로운 퍼포먼스 기대

걸그룹 AOA가 데뷔 후 첫 일본 단독 콘서트를 개최한다.

AOA는 오는 12월 18일 일본 도쿄 신키바 스튜디오 코스트에서 일본 첫 단독 콘서트 '엔젤스 월드 2015-오 보이 아카데미(ANGELS WORLD 2015-Oh BOY ACADEMY)'를 열고 현지 팬과 만난다.

지난해 10월 일본어 버전의 첫 번째 싱글 '미니스커트'로 일본에 데뷔한 AOA는 '라이크 어 캣'과 '심쿵해'의 일본어 버전 등을 히트시키며 일본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펼쳤다. 지난 14일 발표한 일본 첫 번째 정규앨범 '에이스 오브 엔젤스'는 오리콘 앨범 일간차트 1위, 빌보드 재팬 주간차트 1위에 올랐다.

지난 8월에는 일본 공식 팬클럽 'AOE(Ace Of Elvis)' 창단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번 첫 단독 콘서트는 전석 스탠딩으로 진행된다. 다채로운 퍼포먼스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보일 예정이다.

한편 AOA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등지에서 '에이스 오브 엔젤스' 발매 기념 이벤트를 벌였다.

/장병호 기자

'돌연변이' **이천희**

이천희(36)는 '돌연변이'를 촬영하면서 초심을 돌아봤다.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사회 초년생 기자를 연기하면서 배우로서 자신이 바랐던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인기·흥행·시청률은 아니었다. 역할을 연구하고 표현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었다.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을 하면서 살자." 이천희가 '돌연변이'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다.



"인기·흥행·시청률, 그건 초심이 아니죠"

지난 22일 개봉한 영화 '돌연변이'는 제목처럼 이색적인 소재와 내용을 다룬 작품이다. 제약회사의 실험 부작용으로 생선인간이 된 청년 구(이광수)를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이천희는 구를 취재하게 된 방송국 인턴 기자 상원을 연기했다. 극을 이끄는 화자이자 구와 쌍을 이루는 중심인물이다.



이천희는 '아름답다' '바비' '남영동 1985' 등 상업성과 거리가 먼 행보를 걸어왔다. 관객 수보다 연기의 즐거움과 행복을 기준으로 작품을 선택해왔기 때문이다. '돌연변이'를 선택한 것도 비슷한 이유에서였다. "처음에는 생선인간을 어떻게 만들지 궁금했어요. 신기한 경험이 될 것 같았고요. 시나리오를 보는데 상원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친구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재미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영화 속 상원은 인턴이라는 이유로 열정을 착취당한다. 요즘 시대 청춘의 초상과도 같다. 이천희는 모델로서, 그리고 배우로서 보낸 신인 시절을 떠올리며 상원에 공감했다. "이 시대의 사회 구조 같아요. '너 말고도 할 사람은 많다'며 열정페이를 주는 거잖아요. 그건 배우든 기자든 이 시대의 젊은이라면 다 느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나 연기하는 것은 마냥 쉽지 않았다. 극의 화자인 만큼 감정을 최대한 숨겨야했다. 선배 기자들에게 구박 받는 장면에서는 절제된 감정 표현으로 답답함도 느꼈다. 한편으로는 리액션을 중심으로 영화의 밑바탕이 되는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다.

영화 속 상원은 지방대 출신으로 정의와 사명감만으로 기자가 되려고 한다. 치기어린 청춘이다. 그러나 세상을 몰랐던 청년은 냉혹한 현실과 부딪히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진다.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천희가 자신의 초심을 돌아보게 한 질문이기도 하다.

> **방송국 인턴 기자 변신**
> **리액션 중심 새로운 경험**
> **초심 돌아보게 한 작품**
> **더 인간답게 연기하고파**
> **"**

"처음 연기를 하려고 했을 때 제가 바랐던 것은 인기나 흥행, 시청률이 아니었어요. 역할을 연구하고 표현하고 싶었을 뿐이죠. 하지만 많은 배우들이 그런 초심을 잃어가며 다음 계단으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영화가 끝난 뒤 나도 이제는 초심을 지키며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돌연변이'라는 제목은 다의적이다. 표면상으로는 주인공인 생선인간을 뜻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원을 가리킨다. 나아가 영화는 구와 상원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보통의 삶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우리가 돌연변이가 아니냐고 묻는다. 보통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은 이천희가 생각하는 초심과도 연결된다.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 창조적인 영역에서는 멋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나는 남들과 달라' '나는 저들보다 세련돼'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필요는 없으니까요. 어쩌면 저는 배우를 선택하면서 보통의 삶과 거리가 멀어진 걸지도 몰라요. 그래서 더 인간답게 연기자의 길을 가려고 합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4계절의 공허를 노래하다

여성듀오 랄라스윗, 미니앨범 발표
내달 13~29일 소극장 장기 공연도

여성 듀오 랄라스윗이 미니앨범 '계절의 空(공)'을 28일 발표했다.

'계절의 공'은 사계절을 모티브로 한 4곡을 수록한 앨범이다. 계절이 지나간 자리에서 느끼는 공허함과 허전함을 노래했다.

타이틀곡 '불꽃놀이'는 불꽃이 화려하게 터지는 그 순간의 찬란함을 사랑에 빗대 표현했다. 여름을 대표하는 곡으로 도입부와 후렴구 기타 솔로가 인상적이다.

이밖에도 봄의 느낌을 담은 '밤의 노래', 가을을 대변하는 보사노바 풍의 '시간열차', 겨울을 대변하는 '신시아(cynthia)' 등이 수록돼 있다.

이번 앨범은 랄라스윗이 지금까지 발표한 앨범 중 가장 대중적이다. 전작보다 더 과감해진 스트링 편곡에 더욱 드라마틱해진 멜로디 라인 위로 랄라스윗 특유의 서정적인 가사를 녹여냈다.

멤버들도 음악 외의 다양한 작업에 참여했다. 멤버 박별은 직접 그린 일러스트로 '신시아'의 뮤직비디오를 완성시켰다. 또한 멤버들은 다른 세 곡의 뮤직비디오에도 연출과 출연 등에 참여해 미니앨범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한편 랄라스윗은 다음달 13일부터 29일까지 매주 금·토·일요일 총 9회에 걸쳐 장기 소극장 공연 '나의 계절'을 개최한다.

/장병호 기자




E channel × DRAMA cube
E채널 X 드라마큐브 동시방송
당신의 심장은 지금 우리들 만큼
뜨겁게 뛰어본 적이 있는가
로드트립 공감 드라마
라이더스
내일을 잡아라
11월 8일 일요일 밤 11시 첫방송
김동욱 | 이청아 | 최여진 | 윤종훈 | 최민 길해연 장호일 정이랑 이희진 미람 조병규 | 특별출연 | 권해효 홍석천 김강현 이동훈 | 극본 | 박상희 | 연출 | 최도훈
t.cast



불혹 맞은 '삼일로 창고극장' 결국…

韓 첫 민간소극장, 재정난에 폐관

한국 최초의 민간 소극장인 삼일로 창고극장이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40년 만에 결국 문을 닫았다.

28일 삼일로창고극장 정대경 대표(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는 "그동안 적자 누적으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든 버티려 노력했으나 방법이 없어 결국 폐관하게 됐다"며 "1975년 개관 이래 선생님, 선배님, 동료, 후배들의 혼과 흔적이 쌓인 공간의 역사성 또한 지켜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삼일로창고극장은 당초 건물주가 개축하겠다고 한 2016년 문을 닫을 예정이었으나 임대료 등 운영상 어려움으로 지난 26일자로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난으로 폐관·재개관을 거듭하다 2011년 태광그룹이 후원을 결정하면서 기사회생했지만 2013년 지원이 끊겼다. 지난해 7월 대관 공연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다. /염지은 기자

하루키 '해변의 카프카' 韓무대 선다

니나가와 유키오 연출로 첫 만남
내달 24~28일 LG아트센터 올라
다양한 시공간, 유리상자로 표현

세계 문학의 거장 무라카미 하루키와 세계적 연출가 니나가와 유키오가 만난 연극 '해변의 카프카'가 한국 관객들과 처음 만난다.

이번 공연은 2015년 니나가와 유키오 연출가의 팔순을 기념하는 월드 투어의 일환이다. 뉴욕 링컨 센터, 런던 바비칸 센터, 일본 사이타마 예술극장, 싱가포르 에스플라네이드 등 최고 명성을 지닌 극장에서 세계의 관객들과 만났으며 마지막으로 서울 LG아트센터에서 뜻 깊은 대미를 장식한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 한명이기도 한 무라카미 하루키가 2002년에 발표한 '해변의 카프카'는 2005년 뉴욕 타임즈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는 등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 일으킨 대표작이다. 영화나 연극을 위한 소설 판권을 잘 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하루키의 장편소설 중 처음 연극으로 만들어졌다.

'해변의 카프카'를 무대로 옮긴 니나가와 유키오는 일본 예술계 최고 영예인 '일본 문화훈장'을 수상하는 등 아름다운 무대 미학과 깊이있는 통찰력으로 세계 연극계의 추앙을 받는 거장 연출가다. 비영어권에서는 처음으로 영국 로열 셰익스피어 컴퍼니의 연출가로 위촉됐다.



'해변의 카프카'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부조리한 현실에서 벗어나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 집을 나선 15세 소년 다무라 카프카가 끊임없이 방황하며 삶과 죽음, 어른과 아이, 현실과 꿈의 경계를 넘나드는 여정을 다루고 있다. 미국 연극계를 주도하는 극장 중 하나인 시카고 스테판울프 씨어터 출신의 극작가겸 연출가 프랭크 갈라티가 대본으로 각색했다.

니나가와는 눈이 황홀할 만큼 아름답고 스펙터클한 무대를 통해 단 3분 안에 관객들을 연극 속으로 빠져들게 만들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지닌 연출가다. 다양한 시간과 공간을 오가며 여러 캐릭터들이 펼쳐치 복잡하고 광활한 소설 속 세계를 26개의 거대한 투명 유리 상자 세트(실제로는 아크릴)를 이용해 상징적으로 구현한다.

유리 상자들은 무대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저택이 되었다가 공원, 고속도로로 변하기도 하고 장서가 가득 들어찬 도서관, 깊은 숲 속 신비로운 장소를 만들며 역동적이고도 압도적인 스케일을 연출한다.

주인공 카프카 역은 일본 연예계의 떠오르는 신성 후루하타 니노가가 맡았다. 1980~1990년대 일본 최고의 아이돌 스타에서 이제 대배우로 성장한 미야자와 리에, '건어물녀'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킨 인기 드라마 '호타루의 빛'의 부장역으로 국내에도 많은 팬들을 거느리고 있는 후지키 나오히토 등 막강한 배우진이 함께한다.

15세 이상 관람 가능하며 관람료는 4만~8만원, 공연시간은 3시간이다. 일본어로 공연되고 한국어 자막이 제공된다. 문의 (02)2005-0114.

/염지은 기자 senajy7@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불륜의 아이콘' 고충은?

◆ KBS2 '해피투게더3'

오후 11시10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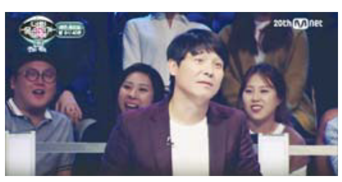
배우 지진희·김성균·성유리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지진희는 드라마 속 역할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는다. 최근 출연 중인 드라마로 '불륜의 아이콘'이 된 그는 "아내와 드라마를 보다가 따귀를 맞을 뻔했다. 화낼만한 일이었다"며 웃음을 자아낸다. 차태현이 자신을 부러워한다는 사실도 폭로한다.

/정리=장병호기자 solanin@

◆ 엠넷 '너의 목소리가 보여2'

오후 9시40분

20년차 베테랑 가수 임창정이 출연한다. 그는 자신이 틀리면 방청객 모두에게 회신을 쏜다고 선언한다. 그는 진짜 실력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



◆ MBN '리얼다큐 숨'

오후 9시45분

나무와 특수 천으로 만드는 몽골인의 집 게르하우스, 나만의 태양광 발전소, 게르마늄을 넣어 많는 전통자기 그릇 등 자연의 새로운 보물이 탄생하는 현장을 찾아간다.



◆ EBS '다문화 고부열전'

오후 10시45분

전라남도 곡성의 한 농촌 마을, 깔끔한 필리핀 며느리 넬리아 코르도바 히메니즈 씨와 고물들을 버리지 않는 시어머니 김정심 여사를 찾아간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9일 (목)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채널CGV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남도지오그래피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KBS네트워크특선 필통 11:55 안녕 우리말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7:50 FIFA U-17 월드컵 16강전 10:0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인간의 조건 스페셜	05:00 MBC 뉴스 05:10 건강 플러스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0 기분 좋은 날 11:00 내 딸, 금사월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7:50 2015 FIFA U-17 월드컵 16강전, 칠레위성생중계 / (2안)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웃찾사 스페셜	06:00 수상한 미용실 살롱 드림 (재) 07:00 이야기 보따리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00 유자식상팔자 (재) 10:2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11:40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재)	05:00 오마이갓 (재) 06: 00 코미디 빅리그 Hot clip (재) 06:20 응답하라 1997 (재) 07:10 응답하라 1994 (재) 09:50 현장토크쇼 TAXI (재) 10:50 할매네 로봇 (재)	06:20 여배우들 08:10 감시자들 10:10 더 바디(2012)	06:40 미스터 로빈 꼬시기 08:40 님은 먼곳에 11:10 신들의 전쟁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0 별별가족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제35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16:00 오늘의 경제 16:10 제12회 KBS 신세대 VJ콘테스트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2:15 인간극장 스페셜 14:00 KBS 뉴스타임 14:10 생활의 발견 (재)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40 동물의 세계 17:00 위기탈출 넘버원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그녀는 예뻤다 (재) 13:30 MBC스포츠 2015 전국초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결승 14:30 뚝?뚝! 키즈스쿨 15:10 마법천자문 15:40 헬로키즈 싸이걸스 (재)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자기야-백년손님 (재) 14:00 문화가중계 15:00 SBS 뉴스 15:10 SBS 이슈 인사이드 16: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16:30 꾸러기 탐구생활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바이클론즈	13:15 냉장고를 부탁해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2:10 집밥 백선생 (재) 13:3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5:20 수요미식회 (재) 16:40 코미디 빅리그 (재)	12:10 아이 로 14:30 끝까지 간다 16:50 터미네이터 4 -미래전쟁의 시작	13:20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 15:30 내셔널 트레져2
18:00 6시 내고향 18:5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9:00 KBS 뉴스 7 19:30 한국인의 밥상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모래위의 기적 23:00 KBS 뉴스라인 23:40 모래위의 기적 24:35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뮤직	18:20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4차전 22: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23:10 해피 투게더 24:45 스포츠 하이라이트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그녀는 예뻤다 23:10 경찰청 사람들 2015 24:30 MBC 뉴스 24 24: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2:00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23:15 자기야-백년손님 24:35 나이트라인	18:3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9:55 JTBC 뉴스룸 21:30 님과 함께 시즌2-최고의 사랑 22:50 썰전 24:15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18:3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20:20 어쩌다 어른 (재) 21:40 너의 목소리가 보여 시즌2 (1회) 23:00 슈퍼스타K7	19:10 소림사 2014 21:30 2012 24:30 최종병기 활	18:00 베스트 키드 20:50 주말 N 영화 22:00 더 브레이브 24:10 나쁜 녀석들 2

선발에게 달린 주도권… 삼성이냐 두산이냐

<클로이드> <장원준>



삼성의 타일러 클로이드. /연합뉴스

2015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1·2차전 1승 1패로 승부 원점 오늘 잠실구장서 3차전 대격돌

2차전까지 마친 한국시리즈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두산 베어스가 1승 1패를 나눠가지며 승부가 다시 원점이 됐다.

지난 26일 대구구장에서 열린 프로야구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한국시리즈(7전4승제) 1차전에서 삼성은 두산에 9-8로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그러나 다음날 대구구장에서 이어진 2차전에서는 두산이 외국인 에이스 더스틴 니퍼트의 호투를 내세워 삼성을 6-1로 제압했다.

3차전은 오늘 잠실구장에서 열린다. 양팀은 각각 타일러 클로이드(28·삼성)와 장원준(30·두산)을 선발로 내세워 또 한 번의 격전을 치른다.

클로이드의 선발 출전은 예정된 수순이다. 윤성환이 해외 원정 도박 파문으로 한국시리즈 엔트리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류중일 삼성 감독은 알프레도 피가로-장원삼-클로이드 순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짰다.

특히 클로이드는 잠실 경기에서 강하다. 올 시즌 11승 11패 평균자책점 5.19를 기록한 클로이드는 잠실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올렸다. 잠실에서 치른 4경기에서 2승 1패 평균자책점 2.84를 기록했다. 두산전 성적은 1승 1패 평균자책점 4.50이었다.

장원준은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에서 맹활약하며 두산의 한국시리즈 진출에 큰 역할을 했다. 11일 준플레이오프 3차전(6이닝 6피안타 2실점)에서 생애 첫 포스트시즌 선발승을 거뒀다. 플레이오프 두 경기(19일 2차전 7이닝 4피안타 무실점, 24일 5차전 6이닝 9피안타 4실점)에서도 호투했다.

장원준도 잠실 경기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줬다. 올 시즌 12승 12패 평균자책점 4.08을 기록한 장원준은 잠실에서 8승 7패 평균자책점 3.44를 기록했다. 삼성전 성적은 4경기 2승 2패 평균자책점 6.23이다.

관건은 체력이다. 플레이오프에서 2경기를 연속으로 치렀던 장원준은 나흘 동안 휴식을 취한 뒤 등판한다.

클로이드와 장원준 모두 구위로 상대를 억누르는 파워 피처는 아니다. 피안타율도 클로이드 0.297, 장원준 0.281로 다소 높다. 넓은 잠실벌에서 펼쳐질 삼성과 두산 야수진의 수비 대결이 한국시리즈 3차전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두산의 장원준. /연합뉴스

최진철 감독 "충분히 승산있는 싸움"

벨기에, 공격·수비 무게감 있어 역습·세트 피스도 철저히 대비

U-17 월드컵

국제축구연맹(FIFA) 17세 이하(U-17)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승승장구 중인 한국 축구 대표팀이 29일 오전 8시(이하 한국시간) 칠레 라세레나의 라포르타다 스타디움에서 벨기에와 16강전을 치른다.

경기를 하루 앞둔 28일 한국 대표팀의 최진철 감독은 "벨기에의 수비 조직력이 다른 팀보다 나은 편이지만 충분히 대비하면 승산이 있다"며 16강전을 앞둔 각오를 전했다.

최 감독은 벨기에가 B조 조별리그에서 승리를 거둔 기니보다 빠르지 않지만 공격과 수비진의 무게감은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미드필더에 3명을 배치한 벨기에의 포메이션상 우리 미드필더진이 좀 더 편하게 경기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공간 뒤를 파고드는 벨기에 공격수들의 움직임이 많지 않아 4명의 수비진도 좀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했다.

최 감독이 신경 쓰는 것도 수비 부문이다. 그는 "우리가 공격하고 나서 수비로 전환할 때나 역습을 당할 때 수비수들의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며 "세트 피스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벨기에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롱패스도 종종 사용하는 만큼 골키퍼도 이 부분을 신경 써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경기에서 벨기에는 원조 '붉은 악마'답게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출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 대표팀은 '백의민족'을 상징하는 흰색 유니폼으로 맞선다. /장병호 기자



FIFA U-17 월드컵에 출전한 한국 축구 대표팀이 29일(한국시간) 칠레 라세레나의 라포르타다 스타디움에서 벨기에와 16강전을 치른다. 사진은 지난 23일 칠레 코킴보 라스로사스스포츠센터에서 훈련 중인 선수들. /연합뉴스

아스널, 캐피털원컵 탈락

2부리그 셰필드에 0-3 완패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아스널이 캐피털원컵(리그컵)에서 2부리그 팀에 완패를 당했다.

아스널은 28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셰필드 힐스버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5-2016 캐피털원컵 4라운드(16강전)에서 챔피언십(2부리그) 팀인 셰필드 웬즈데이에 0-3으로 패했다. 지난 시즌 캐피털원컵에서 사우샘프턴에 패해 32강에서 탈락한 아스널은 이번 시즌에도 8강에 오르지 못했다.

아스널은 전반 27분 대니얼 푸딜의 도움을 받은 로스 월리스에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갔다. 전반 39분에는 월리스의 왼쪽 크로스를 헤딩슛으로 연결한 루카스 주앙에 두 번째골을 내줬다. 아스널은 후반 반격에 채 나서기도 전인 후반 6분 샘 허치슨에 세 번째 골을 허용하며 힘 한번 제대로 써보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다.

아스널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는 7승1무2패(승점 22)로 골득실차에 뒤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장병호 기자



28일(한국시간) 열린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캔자스시티 로열스 선수들이 뉴욕 메츠에와의 경기에서 연장 14회 끝에 5-4로 승리한 뒤 기뻐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캔자스시티, 연장 접전 끝 WS 1승 '쾌거'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1차전

캔자스시티 로열스가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연장 14회 접전 끝에 뉴욕 메츠를 꺾었다.

캔자스시티는 2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의 카우프만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프로야구 월드시리즈(WS·7전4승제) 홈 1차전 뉴욕 메츠와의 경기에서 연장 14회말 에릭 호스머의 끝내기 희생플라이에 힘입어 5-4로 승리했다.

캔자스시티는 3-4로 끌려가던 9회말 1사에서 알렉스 고든이 메츠의 마무리 제우리스 파밀리아를 상대로 극적인 중월 솔로 홈런을 쏘아 올려 연장전으로 승부를 끌고 갔다.

연장 12회말 2사 만루, 연장 13회말 2사 2루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안타깝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그러나 연장 14회말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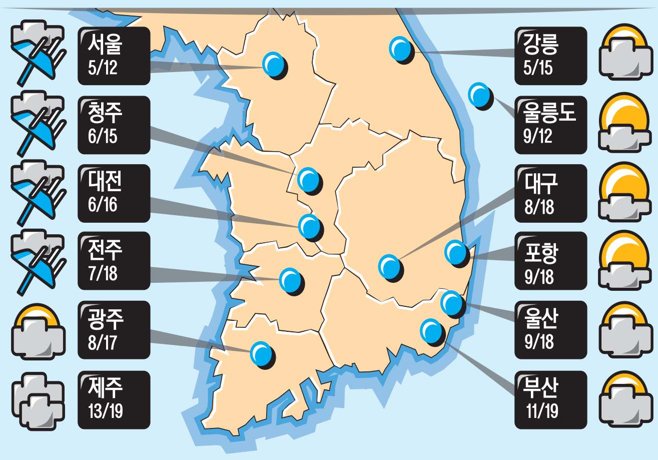
선두타자 알시데스 에스코바르가 3루수 실책으로 출루한 캔자스시티는 이어 벤 조브리스트가 우전 안타를 날려 무사 1, 3루의 기회를 잡았다. 메츠는 로렌조 케인을 거르고 베이스를 꽉 채웠다.

이어 에릭 호스머가 메츠의 6번째 투수 바톨로 콜론을 상대로 우익수 방면으로 깊은 희생플라이를 날려 팀에 승리를 안겼다. /장병호 기자

날씨

10/29 목 일출시각 06:53 일몰시각 17:38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자외선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감기가능지수 / 천식-폐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8	9			2	7		
	7			9	3			1
3							5	
	9			8				4
	1						8	
8				3			6	
	4							7
2			3	7			4	
		7	8			5	9	

		5						3
7		8		9			1	6
		1			3	8		
			7	5		6		
	4			8			5	
		7		3	1			
		2	9			7		
5	6			7		2		4
9						1		

스도쿠 정답

1	8	9	4	5	2	7	3	6
4	7	5	6	9	3	8	2	1
3	6	2	7	1	8	4	5	9
5	9	3	1	8	6	2	7	4
7	1	6	5	2	4	9	8	3
8	2	4	9	3	7	1	6	5
9	4	8	2	6	5	3	1	7
2	5	1	3	7	9	6	4	8
6	3	7	8	4	1	5	9	2

6	2	5	8	1	7	9	4	3
7	3	8	4	9	2	5	1	6
4	9	1	5	6	3	8	7	2
3	8	9	7	5	4	6	2	1
1	4	6	2	8	9	3	5	7
2	5	7	6	3	1	4	8	9
8	1	2	9	4	6	7	3	5
5	6	3	1	7	8	2	9	4
9	7	4	3	2	5	1	6	8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Why are you always late for work?

Boss : Mr. Kim, why are you always late for work?

Young : I'm sorry, sir. I got stuck in traffic.

Young : That's a good excuse.

Lisa : Young, why don't you carpool to work with Jim?

왜 항상 회사에 늦는 거죠?

사장님 : 김씨, 왜 항상 회사에 늦는 거죠?

영 : 죄송합니다. 교통체증이 심했어요.

사장님 : 변명 한번 근사하군요. (나가버리심)

리사 : 영, 짐과 카풀 하는 게 어때?

Quiz

Q.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dialogue?

(A) The woman makes an excuse for her being late.
(B) The boss is satisfied with the man's diligence.
(C) Jim lives near the company.
(D) Jim goes to work by car.

문법Point

Why are you + 형용사(동사+ing)
왜 당신은~ 한거죠?

이번 패턴은 상대방의 어떤 행동이나 상태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말로서 때로는단순한 질문을 넘어서 약간은 핀잔을 주는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Why are you 다음에는 형용사를 쓰거나 동사에 ing붙인 형태를 쓰는데 이때는 현재진행형으로 쓰인 경우라 할 수 있겠습니다.

퀴즈해설

Q. 들려준 내용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A) 여자는 늦은 것에 대해서 변명하고 있다.
(B) 사장은 그 남자의 근면함에 만족하고 있다.
(C) 짐은 회사 근처에 산다.
(D) 짐은 차로 출퇴근 한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호감가는 이성과의 궁합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천천히 다가가세요

알고싶어요 여자 88년 9월 26일 양력 13시 10분
남자 87년 11월 10일 양력

Q 선생님 제가 요즘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 남자가 생겼습니다. 시작하려는 남녀 궁합 봐주세요. 여자 88년 양력 9월 26일 오후 1시 10분이며 남자 87년 양력 11월 10일 생입니다. 그런데 전에 양다리 남자를 만나서 이제는 남자 만나는 게 좀 걱정이 되고 불안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나이도 20대 후반이다 보니 결혼을 전제로 만나야 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선생님께 글을 올립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수고 하세요.

A 좋은 궁합의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여자 사주에서 상대 남자인 정관(正官:나를 극하는 오행으로 남편을 나타냄)이 내조를 잘 받아 일의 성취감이 높고 직장에서도 승진이 잘되어 가정의 가장으로서 승승장구 할 수 있느냐를 봐야 하며 남자사주에서 상대 여자(正財: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부인을 나타냄)가 결혼 후 건강하고 생활하기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 외에도 사주의 팔자와 운에서 합을 이루거나 상생을 해야 하며 사돈 간에 두 가정의 가풍이나 관습이 서로 맞아 당사자인 두 부부가 신경 쓸 일이 없이 화목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 이 사주에 서로 부족한 것을 상호 갖고 있으면 금상첨화가 되겠지만 이렇듯 많은 부분을 공유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두 분의 사주를 볼 때 상대 남자를 만나서 결혼 후 귀하는 잘 될 수 있는데 2016년도 누리는 복(福)만큼을 받지 못하여 헤어질 수 있으므로 귀하의 정해진 사주와 운의 흐름으로 봐서는 이 남자에게 천천히 다가가도록 하십시오. 두 남녀가 따로 태어나서 이십 팔 구년을 따로 자라고 생활 해오면서 형성된 것이 성격인데 안 맞는다고 급하게 바꿀 수는 없는 것이므로 자신을 알고 상대를 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야 합니다.

귀하는 '바위 위에 홀로선 나무'와 같은 형상인데 이는 고독한 권위를 의미하므로 비결은 인내에 있습니다. 생일지에 두 분이 역마살이 있어 객지 생활을 하여 주말 부부가 되기도 하며 귀하의 경우 좌하칠살(座下七殺)은 생활력이 강해 직장생활을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부부간 냉전의 기운이 암시되니 사회생활을 함으로써 오히려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29일 (음 9월 17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쥐 **48년생** 남과 다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60년생** 재물을 다투는 일이 따를 수 있습니다. **72년생** 이성운이 좀 불리합니다. **84년생** 용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 **49년생** 재물이 창고에 가득합니다. **61년생** 이르는 곳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73년생** 백 가지 일을 가히 이루게 됩니다. **85년생** 주변의 친구가 귀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겠습니다.

호랑이 **50년생** 여행이나 출장은 미루세요. **62년생** 환경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74년생** 상태를 사수하세요. **86년생** 내일은 기회가 찾아 올 것입니다.

토끼 **51년생** 손실이 있으나 정신을 차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63년생** 큰 결정은 잠시 미루세요. **75년생**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87년생** 여행을 계획했다면 다음으로 미루세요.

용 **52년생** 매사가 기로에 서서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64년생** 유흥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6년생**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88년생** 정신적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뱀 **53년생** 건강을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65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77년생** 자기의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89년생** 앞에 너무나도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말 **54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66년생** 친목을 돈독히 한 덕을 볼 수 있겠습니다. **78년생**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90년생** 윗사람을 잘 따라야 합니다.

양 **55년생**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집중하세요. **67년생**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날입니다. **79년생** 인생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91년생** 부와 명예가 귀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숭이 **56년생** 사람과의 교제에 구설이 있으면 안됩니다. **68년생** 명성과 이익이 있겠습니다. **80년생** 일이 쉽게 이루어지니 큰 이익이 있겠습니다. **92년생** 능력 있는 윗사람을 만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닭 **57년생** 말을 조심해서 하세요. **69년생** 모든 것이 길한 하루입니다. **81년생** 욕심을 버리고 그 동안의 일을 정리할 때 입니다. **93년생** 모든 일을 침착하게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진행하세요.

개 **58년생** 상황이 자연스럽게 길을 보여줄 것입니다. **70년생** 끝이 없고 감이 분명치 못합니다. **82년생** 마음이 매우 심란합니다. **94년생** 평소 관심 있는 이성에게 데이트신청을 받게 됩니다.

돼지 **59년생** 모든 것이 처음으로 날 것입니다. **71년생** 밝은 이름을 얻겠고 재물을 얻을 것 입니다. **83년생** 꾀하던 일을 이룰 수 있고 바라던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95년생** 즐거운 하루입니다.

진웅섭 금감원장의 '변신'



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지난해 11월 취임했다. 진 원장은 전 원장과 달랐다. 조용한 검사와 정책을 선호하는 편이었다. 그는 취임 초 금융회사 감독정책에 대해 "백조처럼 금감원을 운영하되, 매의 눈으로 금융사를 보겠다"고 했다. 또 피천득 시인의 수필 '플루트 플레이어'를 인용, '무음의 플루트 연주자' 같은 금감원이 될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할 일을 하라는 메시지였다. '중계방송식 감독'보다 '조용한 파수꾼'이 돼 달라는 주문이었다. 자연스럽게 금융감독 관련 뉴스가 줄었다. 존재감이 없다는 비판에도 직면했다.

하지만 최근 금융당국 수장의 행보는 이전과 다르다. 기업 구조조정이란 무거운 화두가 등장했다. 연내에 좀비기업을 색출하라는 '숙제'를 던졌다. 은행에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을 솎아내라고 주문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갑작스럽다는 반응이다.

지난 27일 진 금감원장은 시중은행장 10명과 함께 조찬을 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기업 구조조정에 은행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중국발 경제위기와 미국 금리인상 가시화 등 대외변수가 상존해 있는 만큼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라는 신호다.

은행들의 선제적인 충당금 적립도 빼놓지 않았다. 진 원장은 이 자리에서 은행이 정확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살 수 있는 기업은 적극 지원하라고 했다. 억울하게 희생되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달았다.

금감원은 다음달 초부터 금융권 대출 500억원 이상 기업에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 상반기 572곳의 신용위험평가에서 법정관리나 워크아웃 권고 대상은 35곳 정도였다. 금융당국 수장이 옥석을 가려 달라고 한 만큼 은행이 기준을 강화해 상반기보다 더 많은 한계기업을 솎아내야 하는 상황이다.

기업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은행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금융지원을 거부할 수 있어서다. 벌써부터 은행에는 회사의 운명을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을 게 자명하다.

금융당국의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기업 중에는 3년 이상 적자를 내고 있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살릴 수 있는 기업도 있다. 또 현재는 이익을 내고 있지만 미래가 불투명한 곳도 있다. 하나의 기준으로 살아 움직이는 기업을 솎아내면 부작용이 불가피하다. 억울함을 호소할 수도 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 기준은 재무제표만으로도 불가능하다. 업종별로 기업의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전문가가 기업을 분석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은행을 통해 연내에 옥석가리기를 마무리해 달라고 시한을 정한 것도 무리수가 될 수 있다. 기업 구조조정은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그것이 시장논리다. 진 원장은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를 심각하게 받아 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더라도 연내 옥석가리기 마무리는 기업에 혼란을 줄 수 있다. 금융당국이나 기업 모두 쫓기고 있다는 느낌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진웅섭 금감원장의 '변신'이 성공하기 위해선. /파이낸스&마켓부장 bluesky3@

연예계, 때 아닌 '금수저' 논란



기자 수첩

장 병 호
<라이프부 기자>

최근 한국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헬조선'이다. '지옥과도 같은 한국'이라는 뜻의 신조어다.

헬조선은 사회·경제적으로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는 한국에 대한 은유다. 헬조선과 함께 '금수저'와 '흙수저'라는 표현도 널리 쓰이고 있다.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모두가 체감하는 경제적 격차를 표현한 말이다.

연예계에도 갑작스런 금수저 논란이 일고 있다. 연예인 부모를 둔 자식들이 미디어에 자주 노출되면서다. 금수저는 자신의 노력없이 부모의 힘으로 풍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지난 19일 MBC에브리원은 새 드라마 '상상고양이'에 배우 조재현의 딸 조혜정을 캐스팅했다고 전했다. 이후 조혜정을 둘러싼 금수저 논란이 불거졌다. '상상고양이'는 앞서 유승호를 캐스팅해 화제가 된 작품이다. 이런 드라마에 연기자로는 아직 신인이나 다름없는 조혜정이 주연으로 발탁된 것이다. 대중은 쉽게 납득하지 못했다. 완성된 작품을 보기도 전부터 조혜정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조혜정은 악성 댓글에 결국 SNS에서 탈퇴했다.

조혜정을 둘러싼 금수저 논란은 앞서 아버지 조재현과 함께 출연한 SBS 예능 프로그램 '아빠를 부탁해'에서도 있었다. 프로그램의 기획의도는 아빠와 딸 사이의 서먹서먹한 관계를 개선하는 과정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청자는 이 방송을 아빠의 영향력으로 딸이 연예인이 돼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였다. 처음의 기획의도는 사라진 채 묘한 박탈감만이 시청자 마음에 남았다.

연예계에서 금수저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명확하다.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이다. 그만큼 한국사회 내부에 사회·경제적 고통이 뿌리깊이 박혀 있다는 증거다. 그러나 사회 구조적인 불만과 분노를 애꿎은 연예인에게 표출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생긴다. 연예인은 대중의 비난과 분노를 견디지 못한 채 끝내 고개를 숙인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쾌감을 느낀다.

하지만 쾌감은 순간적인 것일 뿐, 우리 사회의 부조리를 바꾸지는 못한다. 헬조선을 만들고 금수저·흙수저가 생겨나게 한 것은 연예인이 아니다.

인 사

◇ 한국일보 △ AD전략국장 장학만
◇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 원전수출진흥과장 서가람 △ 산업피해조사과장 채규남
◇ 국토교통부 ▷ 부이사관 승진 △ 복합도시정책과장 김형석 △ 주택정책과장 권혁진 △ 국토정보정책과장 손우준 △ 교통정책조정과장 김영태 △ 운영지원과장 손옥주 △ 운항정책과장 장만희
◇ 강원도 ▷ 과장급 직위승진 △ 경로장애인과 이종근 △ 환경과 이정기 △ 환경과 변정탁 ▷ 담당급 직위승진 △ 문화예술과 김규식 △ 교통과 엄명수 △ 감사관실 장석 △ 체육과 전성구
◇ 광양시 ▷5급 승진 △ 기획예산담당관실 박영수 △ 총무과 임채기 △ 회계과 하현정 △ 투자유치과 장형곤 △ 택지조성과 김문수 △ 건강증진과 김경식 △ 안전총괄과 정은태 △ 건설과 전보현

부 고

▲ 정원헌씨 별세, 신귀영(프로축구 성남FC 경영기획실장)씨 장인상 = 27일, 충북 음성군 금왕읍 오선리 33-12 금왕농협장례식장 특1호, 발인 29일 오전 8시30분 ☎ 043-883-4444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송 필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 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社 說

정부여당의 선택지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국회의 시정연설에서 강조했듯이 정부여당은 현재 2가지 어려운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하나는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경제의 체질변화를 위한 4대개혁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2가지가 다 어려운 현안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야당은 강력히 반발하며 이미 장외행동에 나섰다. 4대개혁 가운데는 이른바 '노동개혁'이 특히 까다롭다. 야권과 노동계 일부에서 '쉬운 해고'를 초래한다며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2가지 현안은 블랙홀과 같다. 다른 과제마저 집어삼키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도 민생과 경제활성화가 더 시급하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이들 큰 현안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다른 국정과제에 대한 논의는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강조하는 노동개혁마저 역사교과서 문제에 밀려나는 듯하다.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대에는 정부여당이 결심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그러나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지금은 일방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한 시대이다. 여당이 현재 국회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야당을 무시하면 국정이 원활하게 가동되기 어렵다. 한 가지를 무리하게 해내면 다른 일이 지연된다. 실행에 옮기는 과정에서 또다른 어려움이 따른다. 이를테면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지만, 야당과 국민들의 반대론이 거센 상황에서 실력 있고 유능한 집필자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여당은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을 한꺼번에 달성한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인식해야 한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와 노동개혁이라는 2가지 과제를 모두 단기간에 마무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2개의 선택지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먼저 더 급한 것에 힘을 쏟아 대화와 설득에 집중하고, 나머지 하나는 그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세련된 정치적인 판단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정부여당은 이 시점에서 무엇이 더 급한지 재차 심사숙고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달려드는 개, 죽였을 때 처벌은?

생활 법률

A씨는 5살 딸과 함께 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끔찍한 일을 당할 뻔했다. 딸에게 간식을 주려고 손을 뻗은 순간 인근에 있던 개가 갑자기 이들 모녀를 덮친 것이다. A씨는 딸아이보다 몸집이 두 배나 큰 개가 딸을 해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손에 잡히는 나무 몽둥이로 개를 때려 죽게 만들었다. 이 사실을 알고 달려온 개 주인은 값비싼 개이므로 변상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개를 관리하지 못해 위험을 당할 뻔한 A씨는 정당한 방어였다고 생각한다. 이 경우 A씨는 형사처벌을 받게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황에 따라 정당방위로 볼 수도, 재물손괴죄에 해당될 수도 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등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형법 제20조·24조에 따라 그 행위가 정당행위, 정당방위, 자구행위 등의 요건을 갖췄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A씨의 경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안이 법정으로 가게 될 경우 위난을 피할 다른 수단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만약 위난을 피할 다른 수단이 있거나 적절한 방법이 있었다면 과잉피난행위가 돼 정황에 따라 처벌을 받되, 형을 감경 받거나 면제될 수 있다. 개가 물지 않은 상황인데도 오인한 때에는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A씨의 경우 개를 몽둥이로 때려죽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딸을 보호할 다른 수단이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피할 방법이 있거나 개가 물려고 하지 않았음에도 오인해 죽인 것이라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처벌이 불가피하다.

/연미란 기자 actor@

정부3.0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 WELFARE

h·well 국민건강보험

대한민국 어르신이 행복할 때 까지

당신의 아들딸이 되는 효나누미

"내 나이에 아들 딸이 생겼습니다"

"정성을 다해 내 마음까지 잘 헤아려주니 참 행복합니다"



"자식들도 하기 힘든 일을 따뜻한 손길로 보살펴 주시니 정말 든든합니다"

"치매노인장기요양 서비스까지 있으니 참 힘이 되네요"

"내 아버지 어머니처럼 모시려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당신의 아들 딸이 됩니다"

LONG TERM CARE
노인장기요양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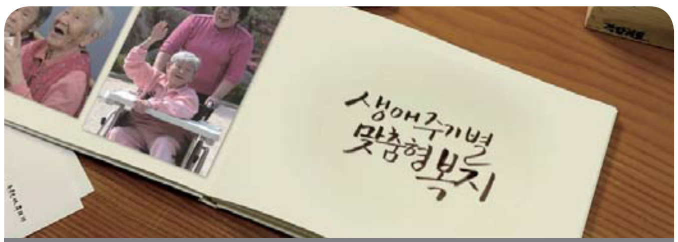
치매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더 많은 어르신을 모시겠습니다

혜택

- **재가급여**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서비스
- **현금급여** : 도서 벽지 거주 등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할 경우 월 15만원 지급
- **시설급여** : 시설급여 서비스

급여이용 본인부담

- **일반대상자** : 시설20%, 재가 15%(단, 비급여 항목은 본인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대상자** : 50% 경감(시설 : 10%, 재가 : 7.5%)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